

## 일제하 延專商科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會事件'

洪性讚

---

본고는 일제하 한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大學탄압·教授탄압 사건이었던 1938년의 '經濟研究會事件' 일명 '赤色教授그룸事件'이 延專商科에서 발생한 學術史的 배경과 '사건'의 전모, 그리고 이 사건이 연전상과의 經濟學風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일종의 大學史 서술방식을 원용하여 검토한 글이다. 한국 근·현대의 學術史, 思想史를 체계화한다는 목표아래 이 시기 韓國經濟學史의 全體像을 정리하려면 同시대에 활동했던 경제학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했던 한국학계의 전체상황, 나아가 그들이 속했던 學術集團(大學)의 학문 경향과 知的 분위기가 시야에 넓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하 延專商科라는 학술집단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그 學問觀·學風의 변화를 추구한 본고와 같은 사례연구의 축적은 연구사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

### I. 序 論

한국에 근대경제학이 도입된 지도 1백년이나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근·현대의 學術史, 思想史 전체를 체계화한다는 시각에서 이 시기의 經濟學史를 계통적으로 정리할 단계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계는 한말 일제하에 활동한 초창기 경제학자들의 학문과 사상을 치밀하게 분석한 여러 연구성과를 내놓기 시작했다.<sup>1)</sup> 아울러 그들의 논저를 全集으로 묶어내는 작업도 병행하기 시작했다.<sup>2)</sup> 이러한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1) 다음이 대표적 논저이다. 李基俊, 1983. 『教育 韓國經濟學發達史』 일조각; 1984. 『韓末西歐經濟學導入史研究』 일조각, 임영태, 1985.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 사계절, 윤기중, 1989. <경제 경영학의 학문적 전통> 『계간연세 진리 자유』 겨울호, 1993. <이순탁> 『계간연세 진리 자유』 봄호, 金基承, 1990. 『襄成龍의 政治經濟思想研究』 고려대박사논문, 趙瑞濬, 1991. 『韓國資本主義發展史』 대왕사, 崔虎鎮, 1991. 『나의학문 나의인생』 매일경제신문사, 方基中,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4. <白南雲의 學問과 思想>(본서 수록), 이수일, 1992. 『日帝強占·解放期 印貞植의 經濟思想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洪性讚, 1993. <일제하 李順鐸의 농업론

문제의식을 반영한 값진 성과들이다. 分斷과 南北戰爭(6·25)으로 초창기 학자들 대부분이 월북하거나 남북되어 전쟁 후 그들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금기시 되었고, 1960년대 이후 歐美경제학이 유입되어 일제하의 學風과 學統이 사실상 단절되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 방면의 연구는 아직은 시작단계라 몇 가지 아쉬움도 남겼다. 한국경제학 발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일제하의 경제학 교육기관(專門學校, 大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일제하 이들 학교의 학문경향·학풍이 당시의 한국사상계와 경제학계 전체의 학문적 경향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가졌고, 또 그것이 일제의 官學的 學問觀과 사상탄압이 극단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변모해 갔는가를 일종의 大學史 서술방식을 원용하여 구체적인 사례연구로서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의 현황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일제하 延禧專門學校(Chosen Christian College, 이하 延禧) 商科의 學術史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과제의 일단에 접근해 보려는 것이다. 본고가 延禧商科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 학교가 일제 초의 '專門學校規則(1915. 3)'에 의거하여 설립된 韓國最古의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으로서, 1930년대에 民族問題·階級問題를 둘러싸고 학계가 분화 대립했을 때 朝鮮經濟學會를 주도적으로 창립 운영하며 한국학계의 反日·反官學·反資本主義的 학문경향을 선도해온 점이였다. 둘째는 1936년 2·26사건과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고비로 미증유의 皇民化 정책을 추구해온 일제가 1938년에 바로 이 학교에서 '經濟研究會事件' 일명 '赤色教授 그룹事件'을 일으켜 이 학교로 대표되던 한국학계의 反日·反資本主義的 학문경향을 탄압한 점이였다.<sup>3)</sup>

따라서 한국경제학발달사의 頂点에서 있었던 일제하 연전상과의 학문경향과 그 변모 양상을 검토하면 1920년~1930년대에 한국사상계, 경제학계 전체의 學問觀이 어떻게 형성·분화했고, 또 일제의 사상탄압이 극단화한 1930년대 말 이래 한국학계의 反官學·反帝·反資本主義的 經濟學風이 어떻게 좌절해 갔는가를 집약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본고의 과제와 관련해서 본고에서 특별히

과 해방직후 立法議院의 토지개혁법안) 『經濟理論과 韓國經濟』 崔虎績 博士 講壇50週年記念論文集 刊行會, 박영사; 1994. <한국근현대 中間派의 정치경제사상-李順鐸의 社會民主主義論을 중심으로> 미발표.

- 2) 다음이 대표적 예이다. 이수일 편, 1992. 『印貞植全集 5권』 한울아카데미, 하일식 편, 1994. 『백담운 전집 4권』 이론과 실천사.
- 3) 연전상과에서는, 같은 시기에 校外에서 일어난 興業俱樂部, 同友會 사건의 여파로 1938년 9월과 10월에 洪承國, 崔淳周마저 강단을 떠났다(기소유예). 興業俱樂部사건은 '경제연구회사건' 관련자로 유여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나와 일어났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金相泰, 1992. <1920~1930년대 同友會·興業俱樂部연구> 『한국사론』, p. 28 참조. 이 두 사건이 연전에 미친 영향은 주 153 참조.

유념한 문제는 일제하 한국 최대의 학원탄압 교수탄압 사건이었던 1938년의 經濟研究會事件 = '赤色教授그룹事件'이 延專商科에서 일어났던 학술사적 배경과 '事件'의 전모, 그리고 이 사건이 연전상과의 경제학풍에 끼친 영향과 의미를 해명하는 일이었다.

한국 근·현대 學術史, 思想史를 체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기 한국경제학사의 전체상을 정리하려면 경제학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크게는 그들이 속했던 당시의 학술계 전체, 작게는 그들이 속했던 학술집단(大學)의 학문 경향과 知的 분위기가 연구의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류의 大學史的 접근은 연구사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sup>4)</sup>

## II. 1920년~1930년대 延專商科의 經濟學風

### 1. 1920년대 중반기의 學風

#### 1) 教授陣과 學問觀

1920년대 中半期 한국의 사상계와 경제학계는 3·1운동 좌절 이후 일제의 強占 정책이 고도화하고, 1차대전 후 세계사적 규모로 분출한 각종 思潮가 대거 유입되는 속에서 그 學問觀에 다양한 분화가 나타났다.<sup>5)</sup> 첫째는 일제 수탈정책과 강점이 데올로기에 사상적·학문적 기반을 제공한 官學的 학문관과<sup>6)</sup> 이에 대립 저항한 反官學 反日的 학풍으로의 분화였다. 둘째는 反日 학풍내에서의 분화로서 여기에는 크게 두 계열의 학문관이 공존하며 각축하였다. 하나는 조선후기 이래의 地主的 근대화 노선에 연원을 두고, 한말이래 수용된 社會進化論, 자유경쟁주의와 大正데모크라시期的 자유주의, 民主主義 등에서 영향받은 資本主義의 社會思想과 學問觀이었다.<sup>7)</sup> 다른 하나는 조선후기 이래의 農民的 근대화 노선에 연원을 두고, 1차대전

4) 일제하의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은 京城帝大, 普成專門, 京城高商 등 다수였다. 따라서 연전상과의 경제학풍을 이해하려면 이들 학교의 학풍과 비교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방면의 연구부진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로 돌린다. 한편, 본고에서는 '學風'이라는 용어를 그 학교 교수들의 학문경향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되 학생들의 학문적 성향과도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학문의 경향, 학문의 분위기 또는 학문의 전통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5) 이하 방기중, 1992, pp. 68~71에 의한다.

6) '官學御用學派' '親日人脈양성'을 목표로 한 1924년 5월의 경성제대 설립이 대표적인 예이다(장세운, 1992. <일제의 京城帝國大學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7) 1920년대의 文化運動論, 실력양성론 등 민족부르주아지 右派가 추진한 地主 資本家 중심의 자본주의 근대화론과 한말이래 수용된 고전학과, 역사학과, 국민경제학과, 한계학파의 경제학이 이 계통의 대표적인 운동론이자 경제사상이다. 이 중 사회개량주의, 勞資協助主義, 講壇사회주의, 사회정책학과 등으로도 불린 (新)역사학과 경제학은 勞農계급의 사회적 진출을 일정하게 인정하여 진보적 社會觀 확산에 기여했으나 大正데모크라시가 끝나면서 국가권력과 부르주아지

과 러시아 혁명을 경유하며 수용된 노동조합주의, 생디칼리즘,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기독교사회주의 등 잡다한 사회사상과 좌익사회주의, 불세비즘 등에서 영향받은 社會主義 共產主義의 사상과 학문관이었다.<sup>8)</sup>

1915년 3월에 YMCA에서 개교하여, 1917년 3월에 '專門學校規則'(1915. 3)에 의거한 한국 최초의 高等教育기관으로 승격된<sup>9)</sup> 延專商科가 본격적으로 교수진을 충원하고 학생연구활동을 조직하여 고등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은 사상계와 학계가 이렇게 형성·분화하고 있던 1920년대 중반기였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인물은 商科 科長 李順鐸(曉亭, 1897~?) 교수였다.

이순탁은 1916년에 도입하여, 金季洙(경성방직, 동아일보)의 학비보조로 神戶高商을 거쳐 京都帝大 경제학부에서 당대 일본 최고의 맑스주의 경제학자 河上肇 교수에게 첨단학의 맑시즘을 배운 학자였다.<sup>10)</sup> 이러한 이순탁은 하상조의 제자라는 명성과 김연수의 후원을 배경으로 귀국 후 1년 동안 동아일보에만 무려 수십회에 걸쳐 맑스주의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初潮期の 半島사상계”<sup>11)</sup>에서 정통파 맑스주의 경제학자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는 한편, 民友會, 조선물산장려회 등 민족운동 진영의 사회단체에도 가입 활동하여 민족주의자로서의 인상도 뚜렷하게 남겼다. 사실 그의 내면세계는 김연수와와의 만남으로 상징되는 민족주의 右派의 실력양성론과 河上肇와의 만남으로 상징되는 맑스주의라는 두 개의 상반된 세계관 학문관이 혼재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주의 국제주의를 추종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순탁은 일제강점하라는 ‘特殊事情’ 때문에 한국인은 총체적으로 無產者化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국의 민족해방운동은 계급주의 국제주의 노선이 아닌 민족협동노선에 서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의 勞資, 勞農, 男女가 단결하여 민족독립=政治革命을 달성한 후 社會革命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2단계 혁명론으로서 맑스주의 계열내에서는 勞資협조주의, 사회개량주의, 思想과 主義의 自由競爭을 강조한 일종의 社會民主主義者였다.<sup>12)</sup> 이러한

를 옹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방기중, 1992, pp. 140~142, 이준식, 1993. <백남운의 사회사 인식> 『한국사회사 연구의 전통』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40, 문학과지성사).

8) 조선공산당 창당(1925)으로 집약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과 1920년대에 대거 소개된 맑스주의 학설이 이 계통의 대표적인 운동론이자 경제사상이다.

9) 延專의 設立前史는 이기준, 1983, pp. 142~144 참조.

10) 京大재학(1919. 9~ 選科, 1921. 4~ 本科, 1922. 3 졸업 귀국)중인 1920년 5월에는 京都朝鮮人勞動共濟會를 결성, 회장으로서 그곳 한국인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래서 경찰은 “排日사상을 포지한” 그를 “目下注意中”이었다(警保局保安課, <朝鮮人概況 3, 1920. 6. 30>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I』 p. 63). 이순탁의 생애와 사상은 윤기중(1993), 홍성찬(1994)에 자세히 다룬다.

11) <意見書> 1938. 12. 15. 경제연구회사건 수사를 마친 경찰이 검찰에 송부한 문서이다. 이하 <意見書>라 부른다.

12) 홍성찬(1994). 백남운도 1928, 1929년경부터 이순탁을 “사회개량주의에 상당히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피고인 백남운 3회>). 예심에서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사>는 이하 같은 요령으로 표기함. 작성일은 주 123 참조.

이순탁은 1923년 4월에 연전상과 과장이자 유일한 전임교수였던 白象圭(蓮湖, 1880~)의<sup>13)</sup> 추천으로 연전상과 교수가 되었다.<sup>14)</sup> 그해 10월 백상규가 普成專門으로 옮기자 그는 상과의 과장대리가 되었고 1년 후인 1924년 10월에는 정식 과장이 되었다. 27세 약관의 나이에 상과의 유일한 전임교수 겸 과장, 학교당국자(교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상과는 물론 학교의 실력자가 된 그는 1922년에 私立普成法律商業學校가 普成專門學校로, 京城高商이 官立학교로서 재출발한데 이어 1924년에 京城帝大가 설립되어 경제학을 가르치자 이에 대응하여 商科의 교수진 보강에 착수했다. 1925년 4월에는 白寬洙의 소개로 유억겸 學監이 추천한 동경상대 출신 白南雲을, 그해 10월에는 교장 에비슨이 천거한 콜롬비아大 출신 조병옥을 영입했고, 그의 金濬鎬(교수, 상학사, 회계학, 早稻田大), 尹定夏(조교수, 동경상대), 洪承國(조교수, 영어, 오하이오주립대)을 전임교수로 보강하였다.<sup>15)</sup> 미국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이자 직업교육을 중시해야 할 전문학교 상과였던만큼 일본유학파가 다수를 점한 학계풍토 속에서 미국유학파를 중용하고 '理論과목', '技術과목' 담당교수를 고루 영입하는 등 일본과 미국,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꾀했다.

연전상과의 학풍은 1920년대 중반에 민족주의 맑스주의 사상을 지닌 이순탁의 주도로 다양한 교육배경과 학문경향을 지닌 학자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는 反日 反官學的 성향인데, 이는 이순탁을 비롯한 상과교수들의 학문적 기조이자 당시 연전 전체의 사상적 분위기가이기도 하였다. 상과의 이순탁, 백남운, 조병옥 교수가 1925년에

13) 서울생으로 16세까지 한학과 영어를 공부하다 渡美하여 고등학교를 마친 후 브라운대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판료로서 일하다 延專 개교와 함께 상과과장으로 부임하여 경제학을 강의했다(윤기중, 1989).

14) 1920년대 초의 연전 교수는 1921년 12명, 1922년 15명, 1923년 18명, 1924년 21명에 불과했다. 이순탁과 함께 온 俞億兼(동경제대)은 부임직후 學監(Dean)이 되었다(주 57). 1910년대 말, 1920년대 초의 상과 교수진은 1918년 현재 백상규, 津田猛哉(교수), 金尙沃(강사, 명치대), 1921년 현재 백상규, 尹定夏(강사) 뿐이었다(연세대학교, 1969, 『연세대학교사』 pp. 350, 『연전졸업앨범』 1922). 이순탁은 부임 후 倉庫論(1923. 4~1924. 3), 商業文(1923. 4~1924. 3), 商業史(1923. 4~1926. 3), 商業政策(1924. 4~1926. 3), 經濟原論(1924. 4~1933. 3, 1934. 4~1938. 3), 統計學(1923. 4~1933. 3, 1934. 4~1938. 3), 保險論(1923. 4~1933. 3, 1934. 4~1938. 3), 珠算(1926. 4~1933. 3, 1934. 4~1938. 8)을 강의했다. 이순탁을 연전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김명선이었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경위는 윤기중(1993) 참조.

15) 『연전졸업앨범』 1926, 1927. 홍승국은 주 144 참조. 1927년에는 孫奉祚(조교수)가 취임했는데 1901년 마산출생으로 山口高商, 동경상대(상학사)를 나왔고 상연산술, 은행론, 상업정책 등을 가르쳤다(한양학인, 1931. <左傾教授 右傾教授-延禧專門教授履評(續)> 『삼천리』 12). 金濬鎬(平北 安州 출신)는 在日本朝鮮人留學生會 회장을 역임하며, 그 기관지 『學之光』에 <상업발전에 대하여>, <朝鮮關稅制度를 논함>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으며, 1920년에 졸업했다(『學之光』 19, 20호). 1920년대 중반에는 『朝鮮의 土地兼併과 其 對策』(조선도서주식회사, 1923)을 출판하여 일제의 강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鮮于全(경제학사, 早稻田大)이 강사로 나왔는데 그는 이순탁이 제론했던 '家産農地制'를 지지한 인물이었다(홍성찬, 1993).

朝鮮事情研究會와 태평양문제연구회조선지회에 참여했고 1925년, 1926년에 발족한 흥업구락부, 수양동우회에 연전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단적인 예였다.<sup>16)</sup> 둘째는 반일적 학풍을 기조로 삼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學問觀과 사회주의의 학문관이 공존한 점이었다. 연전의 학문적 자유주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1920년대 중반의 한국 사상계와 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1920년대 중반에 연전상과에 이 두 가지 학풍이 공존했다는 사실은 상과교수들의 학문관을 검토할 때 좀더 분명하게 파악된다. 우선 이순탁은 “朝鮮의 河上博士”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맑스주의 경제학을 가장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확신했고, 백남운은 동경상대 재학중 가치론에 흥미를 가져 맑스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연전부임(1925~ 조교수, 1926~ 교수) 후에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朝鮮經濟史의 學域”을 개척한다는 학문적 야심을 갖고 맑스이론을 더욱 천착했다.<sup>17)</sup> 특히 백남운은 1920년대 후반에 이미 左傾思想이 강한 학생들과 학내외의 일반인사들로부터 “延專 三寶의 하나”, “秀才” 소리를 들은 ‘左傾학자’로서 연전상과의 맑스주의 학문관을 대표한 인물이었다.<sup>18)</sup> 그러면서도 이들은 민족적 관점에서 맑시즘을 수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은 민족해방이 전제되는 한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조병옥은 미국에서 11년을 체류하며 콜롬비아대에서 썬코비치 교수의 공산주의 비판이론, 클라크(J. B. Clark) 교수의 한계생산력설, 듀이 교수의 프래그마티즘을 배운 전형적인 미국학풍의 체득자였다.<sup>19)</sup> 재화의 가치를 稀少성과 效用性에서 찾고

16) 조선사정연구회에는 유억겸(학감), 이관용(문과교수), 이춘호(수물과장) 교수와 선우전(상과) 강사가, 흥업구락부에는 유억겸, 이춘호(수물과), 최현배, 조정환, 백남석(이상 문과), 흥송국(상과) 교수가, 수양동우회에는 조병옥(상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정표, 1991. <태평양문제연구회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 6, 朱赫, 1991. 『朝鮮事情研究會의 연구』 한양대 사학과 석사논문, 김상태(1992) 참조.

17) 백남운(東岩, 1894~1979)의 修學, 사상형성, 延專에서의 활동은 방기중(1992)이 자세하다. 백남운이 변증법적 세계관과 맑스주의 경제학에 심취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방기중(1994)의 주 5 참조. 한편 그는 연전에 취직한 후 “朝鮮經濟史의 學域”을 개척한다는 학문적 야심을 갖고 “友人과의 서신교환이나 방문”조차 삼가며 조선경제사 문헌을 섭렵하고, 방법론으로서 史的 변증법이론을 열심히 연구하여, 사적 변증법을 적용한 독창적인 조선경제사를 서술하려 했다 ((피고인 백남운 2회)).

18) <피고인 이순탁 2회>와 한양학인(1931)의 “연전상보의 하나가는 인물로 두뇌의 명석함과 치밀함은 견줄 데가 없으리만큼 過人하다. 記者가 왕년에 氏를 대할 때는 古書를 좋아하는 성벽을 보았다. 요새 들리는 소문에는 朝鮮經濟史 피고에 눈뜬 사이가 없다든가.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 요령만 따서 거기에다 현하의 달변을 섞어 강의할 때 누구나 좋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맑스?)적 경향을 가진 학자로 상과에 있어서는 支柱이요 軸軸이다” 참조. 그는 연전에서 상업통론, 은행부기, 상업사, 日語商用文, 회계학, 경제원론(1933년), 상업부기, 東洋經濟史(1934. 9~1938. 3), 상품학(1933. 8~1938. 3) 등을 강의했다.

19) 1914년에 도미하여 와이오밍高(1918)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대에서 학사(1922), 석사(1923, 競爭說의 沿革의 發展), 박사(1925, 한국의 토지제도)를 마쳤다(趙炳玉, 1963. 『나의 回顧錄』 어문각. 초판은 1959년 간행). 당시 콜롬비아대에는 셀리그만 교수도 있었는데 셀리그만, 클라크는

(주관적 가치학설), 사회적 대립과 투쟁도 재화의 최소성과 인간욕망의 무한성에서 비롯한 '우주적 원리'이자 통시대적 필연적 현상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해결책도 과학응용에 의한 생산력 증대, 생활방식 간소화, 산아제한, 애타심 계발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자세였다.<sup>20)</sup> 계급적 관점이 빠진 전형적인 부르주아경제학의 세계관이자 학문관이었다.

1920년대 중반 연전상과 경제학자들의 학문경향은 이처럼 반일적 학풍을 공통기로 깔면서 크게는 맑스주의와 자본주의 경제학이 혼재하고, 작게는 맑스주의, 民主主義, 자본주의 이념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맑스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상반된 세계관 학문관에 서 있었기에 내면에서는 갈등도 했지만,<sup>21)</sup> 반일 반관학의 자세를 공통적으로 견지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사상적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며 공존하였다. 이순탁, 백남운, 조병욱 교수가 조선사정연구회와 신간회에 유역겸등과 함께 나란히 가입 활동한 이유였다.<sup>22)</sup>

## 2) 經濟研究會의 創立과 學術경향

1920년대 중반에 교수진을 보강한 연전상과는 학생들의 학술활동을 조직화하는 일에도 착수했다. 주지하듯 당시 일본의 대학에서는 大正데모크라시운동의 영향을 받아 동경제대의 新人會, 경도제대의 사회과학연구회, 早稻田大의 新思想研究會 등 학생사회과학 연구서클들이 자유주의적 분위기를 아래서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1926년에는 경성제대 법문학부에 四方博, 三宅鹿之助를 지도교수로 '경제연구회'라는 학생서클이 태동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연전당국은 학생들의 연구단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1926년 5월에 文科, 商科, 數物科에 哲學研究會(The Philosophy Club), 經濟研究會(The Economic Club), 數理研究會(The Science Club)를 만들었다.

경제연구회는 1926년 5월 3일 상과 각학년 유지들이 창립발기회를 열고, 5월 7일 金根培(임시회장) 金洛基(임시서기)의 주도로 창립총회를 열어 회칙을 확정함으로써 정식 출범했다.<sup>23)</sup> '경제이론 및 실제문제의 討究와 회원간 친목도모'가 창립목적

일찍이 河上肇 교수가 사숙했던 경제학자들이다(홍성찬, 1994). 河上 교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순탁, 백남운은 조병욱 영입시에 이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20) 조병욱, 1926. <社會的 關爭의 經濟的 기초 및 그 救濟策> 『조선일보』 1. 1.

21) 이순탁, 백남운 교수가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경제학을 강의"한 반면 자신은 "자유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경제학 및 사회학을 강의하여 학교내에서도 학생들의 인기를 끌 수가 있었다"는 조병욱(1963, p. 87)의 회고는 이를 말한 것이다.

22) 신간회에는 연전의 유역겸, 이순탁, 백남운, 조병욱, 이관용 등이 참여했다. 신간회에 대해서는 이균영, 1993.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참조.

23) 자세한 창립 사정과 회칙은 『經濟研究』 창간호(1927) 참조. 학교당국은 경제연구회를 Economic Association이라고 번역했다(C. C. C. 1937. *Chosen Christian College Bulletin*, 1-3). 한편 철학연구회, 수리연구회는 후일 文友會, 理學研究會로 명칭을 바꾸었다.

〈표 1〉 경제연구회 임원 명단

	1926	1927	1933	1934	1935	1936	1937	1937*	1938
위원장	李定根	安慶蓮	李錡翹	하순덕	이동수	조은상	김창식	朴鍾國	조사수
사무부장	金洛基	張道成	朴源轍	金永燦	咸景鐸	이종무	김명관	異熙哲	李基東
부원	朴恒滿	宋運淳	河順德	金寬性	李鍾武	李相哲	김연식	박동규	方元淳
부원	李晶珪	金濟貞				金明寬	朴東奎	李義洙	李秉憲
연구부장	李永斗	鄭鎮采	李東壽	이동수	金東光	李 墉	林鍾培	李義甲	金大根
부원	崔哲柱	林炳哲	朱金用	이병목	趙殷相	김동광	韓載成	朴潤奎	金支培
부원	金宅秉	金鍾淳				吳義三	朴鍾國	全相哲	金浩源
부원						金昌植	白贊旭	김상경	趙孝源
부원						李義甲	박윤규	유시완	崔銀涉
출판부장			徐康百	李定業	趙鍾杓	이정업	이경희	趙仁濠	金光洙
부원			李定業		이정업	朴先玉	이대균	하문덕	金景俊
부원			李炳默		이원구	崔炳準	河文德	丁海敦	朴雨哲
부원			金永國			李元九	柳時浣	趙衡台	金炳熙
부원						李大均	徐相屹	민병두	呂昇九
부원						金衍植	趙蛇洙	조사수	宋鍾克
부원						李敬熙	金相謙	崔敦暎	
사교부장	吳行吉	閔庚輝				李奇男	전사용	金鍾河	박용업
부원	柳信馨	李環鎬				崔周鉉	高正得	姜永學	金景洙
부원						全四龍	朴容業	朴容業	趙庚龍
부원						玄泰鎬	閔丙斗	고정득	고정득
부원									白英基

자료: 『經濟研究』 창간호, 〈이원구 2회 10. 5〉(이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같은 요령으로 표기함.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1938년에 작성되었으므로 연도는 생략하며 재인용할 때는 날짜도 생략함), 〈이순탁 4회 11. 24〉, 〈京西高秘 제3213호 1938. 3. 29. 서대문경찰서장. 京畿道警部長, 京城地法檢事正 殿. 연회전문학교의 學內組織에 관한 건〉(이하 〈京西高秘 3. 29〉), 〈京西高秘 제3213호의 2. 1938. 5. 10. 서대문경찰서장. 경기도경부장, 경성지법檢事正 殿. 연회전문학교의 학내조직에 관한 건. 對 3월 30일付 本號〉(이하 〈京西高秘 5. 10〉), 〈이회수 1회 9. 26〉, 〈김종하 1회 9. 29〉. 1937년\*는 1학기 초에 내부사정으로 改選한 명단이다.

이고, 상과생 전원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庶務部(文簿와 재정관리), 研究部(조사연구 강연회 토론회 개최), 社交部(친목 사교)를 두어 운영해 가기로 했다. 임원은 〈표 1〉과 같았다.

상과 교수들은 경제연구회 창립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순탁은 제1회 정기총회(1926. 6. 7)에 참석하여 “상과 수재학생”으로 한정했던 창립회칙의 회원규정을 상과재학생(通常회원), 찬조회원(본교 상학부 회원), 특별회원(상과 졸업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여 통과시켰고, 그해 말 제1회 경제강연회(1926. 10. 29) 때는 경도제



대 경제학부 후배 李寬求, 金秀學을 연사로 초빙토록 주선해 주었다. 백남운도 잡지 『金融과 經濟』 10권을 기증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sup>24)</sup> 창립기의 경제연구회는 교수들의 지원 속에서 순조롭게 운영되었다. 학술경향도 교수들의 학문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반일적 기초하에 맑스주의, 社民主義, 自由主義가 공존하였다. 이는 1927년 2월 12일의 제2회 정기총회 결의로 발간에 착수하여, 그해 12월 20일에 간행한 『經濟研究』 창간호가 잘 보여 준다.<sup>25)</sup> 조선인 경제의 몰락, 조선농촌의 파탄, 암울한 조국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무산대중과 함께 최후까지” 싸워 “새 세계를 건설”하자는 항일자세를 뚜렷이 밝혔고,<sup>26)</sup> 맑스주의 입장에서 이론과 현실을 분석한 글,<sup>27)</sup> 社民主義의 현실운동 노선을 검토한 글,<sup>28)</sup> 자유주의 입장에서 맑시즘을 정면으로否定한 글을<sup>29)</sup> 함께 게재하였다.<sup>30)</sup>

## 2. 1930년대의 學風

### 1) 教授陣과 學問觀

1930년대 前半期の 한국사회는 1929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체제적 모순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증유의 정치적 사상적 위기를 맞았다. 공황의 모순을 전가하기 위한 일제의 수탈정책이 고도화하고 제국모순은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은 급속히 확산했다. 노농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赤色化도 어느 때보다 뚜렷했다. 반면 치안유지법 개정, 思想善導대책 수립같은 일제의 사상탄압은 강도를 더해갔다. 한국사회 전체가 천황제 파시즘, 전시체제의 과도기로 들어선 것이다. 파시즘 형성기의 이러한 정세변화는 한국의 사상계 학계에도 크게 두 측면에서 변화를 가

24) 『경제연구』 창간호.

25) 『경제연구』 2호(1929. 3. 15)의 권두언도 논조가 같다(연세대학교, 1969, p. 366).

26) 〈창간사〉와 〈창간에 임하여〉(林炳哲)가 예이다. 경제연구회 학생들은 항일운동에도 나섰다. 6·10만세 운동때 연전에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소속학생 40여 명이 연행되고 그 일부가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연세대학교, 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4』 p. 10), 상과에서는 金洛基, 金根培, 林炳哲, 宋運淳, 張熙昌 등 9명이 연행되었다. 경제연구회의 주도적 인물들이다(주 23, 표 1). 그해 말 상과 졸업생들은 60회라는 결사를 조직하면서 禮紀를 사용하여 경찰조사를 받기도 하였다(이순탁 2회 6. 13)). 1928년 11월 초 경찰의 기속사 급습과 林炳哲, 金魯謙 등 상과생 11명 검속, 천황즉위일 경찰의 연전 포위, 12월 초의 학술강연회 해산과 金東運(상 1) 검속 등도 그 예이다(연세대학교, 1969, 『조선일보』 1928. 11. 6~7, 11. 11, 11. 13, 12. 6~7).

27) 〈資本의 의의〉(朴旺勤), 〈中等階級은 무엇이나〉(九里生), 〈자본주의 경제조직에 대한 아담스미스와 칼 맑스 경제사상 및 그에 대한 음미〉(吳行吉) 등이 예이다.

28) 〈산디칼리즘〉(임병철)이 대표적이다.

29) 〈'否定的 否定'의 否定〉(鄭鎮采)이 대표적이다. 정진채는 〈空中보험〉, 〈조선재래의 商業證券에 관하여〉, 〈조선상업용어〉라는 글도 실었다. '기술과목'과 관련된 가치중립적인 글들이다.

30) 이 밖에 창간호에는 〈불란서革命 당시의 경제사상〉(李寬求), 〈니힐리즘에 대한 片的 高찰〉(宋運淳), 〈조선금융기관조직에 대하여〉(金秀學), 〈商工業으로 본 조선〉(韓宮鎭), 〈조선인과 農業〉(朴鼎均), 〈농촌사회문제로 본 副業의 地位〉(竹性), 〈農村經濟의 一片〉(趙東비) 등이 실려 있다.

져왔다.<sup>31)</sup>

첫째는 일제의 강점정책을 합리화 美化하는데 학문의 목표를 둔 官學아카데미즘 官學風이 확산한 점이었다. 京城帝大 교수가 중심이 된 경성제대법학회, 朝鮮經濟研究所(1928년 설립), 靑丘學會(1930년) 등이 내놓은 日鮮同祖論, 朝鮮特殊事情論(한국사의 정체성론 타올성론), 總督政治恩惠論 등이 관학의 대표적인 논리였다. 둘째는 勞農대중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종래 자본주의적 세계관 학문관에 기반했던 민족개량주의 세력이 1920년대 후반부터 그 계급적 속성과 타협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改良化한 점이었다. 반면 사회주의 세력은 계급적 편향을 강화하며 더욱 좌경화했고, 민족협동 노선의 非妥協 민족주의 세력도 그 입지를 크게 위축당하며 동요하였다. 新幹會 해체는 이와 같은 사상계의 동향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1930년대 초 연전상과가 직면한 사상계 학계의 상황은 이러하였다.

한편 연전상과 내부에서는 1929년 6월에 발발한 同盟休學의 여파로 그 사상적 版圖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1929년의 商科盟休는 “성경시간에 불온한 태도를 보인” 상과 2년생 金東運을 퇴학처분한 것이 발단이 되어<sup>32)</sup> 상과 2학년의 집단반발(5. 28)과 징계, 상과 전학년으로의 반발확산과 要求書 제출,<sup>33)</sup> 학교의 요구서 철회 지시와 학생들의 불응, 상과생 전원에 대한 학교의 퇴학선언과 상과생들의 盟休돌입(6. 8), 문과 수물과 학생의 동조와 임시방학 선포(6. 10), 상과생 98명에 대한 제적조치와 학생들의 복교탄원, 학교측의 복교불허로 이어진 학내사태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병옥은 상과과장 이순탁의 교체를 요구한<sup>34)</sup> 학생들에 동조하여 교장, 교무회의(8. 27), 교수회(9. 2)의 학생제적 방침에 반대했고, 자신이 지휘장으로 있던 신간회경성지회의 명의로 延專에 조사질문위원(權承烈, 洪起文, 方斗波, 朴漢卿)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시종 학교와 이순탁을 공격했다.<sup>35)</sup> 결국 그해

31) 이하 방기중, 1992, pp. 84~96 참조.

32) 김동운은 경찰에서 구류처분을 받았던(주 26) 무철한 항일의식 소유자인데 그를 포함한 이 시기의 연전상과 학생들은 탐시즘이 급속히 확산되는 속에서 唯物論, 無神論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다. “大正 말기부터 昭和 초기에 걸쳐” 思想運動의 波高가 밀려와 延專에서도 “左翼생도들”의 주도아래 학교의 校規命令과 主義精神에 反하는 反종교운동, 聖經교원배척, 성경 과목 폐지와 시간감소 등을 요구했다는 이순탁의 진술은 이를 말한 것이다(〈피고인 이순탁 5 회〉). 연전맹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1929. 6. 9~10, 6. 17, 6. 23, 8. 1, 8. 26, 9. 14, 9. 20. 『중의일보』 1929. 6. 10~11, 8. 25, 8. 28, 9. 6~7, 9. 9~10. 『매일신보』 1929. 6. 11, 6. 14~16, 6. 22 참조. 이하 별도의 주가 없는 한 같다.

33) 요구서는 처벌철회, 학생대우개선, 祈禱와 聖經교육 개선, 성경교사와 白南爽 교수, 丁奎稔 강사 배척, 상과과장(이순탁) 교체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34) 학생들이 이순탁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는 진보적 애국적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가 학교당국자의 일원으로서 연전학생회 해산(1926. 11, 주 82 참조)에 동조하는 등 학생운동을 탄압한데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를 “衣食과 地位를 위해 한때 抱持한 바 있던 탐스주의 사상에서 變身 改宗”한 “人格的으로 비열”한 인물이라고까지 공격했다(〈피고인 이순탁 5회〉).

가을 학교당국은 맹휴선동 혐의로 조병옥을 퇴직시켜 버렸다. 맑스주의 '思想運動의 波高'가 높아지는 속에서 일어났던 상과맹휴가 이순탁, 백남운의 맑스주의적 학문관과 공존 각축하며 자본주의의 학문관, 세계관을 대표해 온 부르주아경제학자 조병옥의 사회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반면 맹휴시 학생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상과과장 이순탁은 교장이 차제에 “商科科會員(교수진)을 근본적으로 改造”해도 좋다고 격려했을만큼 그의 學內地位를 확고히 다졌다.<sup>36)</sup> 그리하여 이순탁은 맹휴 이듬해 4월에 조병옥 후임의 전임교수로 연전상과 제자이자 경도제대에서 맑스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盧東奎를 임명했고,<sup>37)</sup> 이어서 연전상과 출신으로 미국에서 實務的·技術的 학문을 교육받고 돌아온 崔淳周<sup>38)</sup>, 林炳赫<sup>39)</sup>을 영입했다.

35) 따라서 조병옥이 상과과장을 차지하려고 맹휴를 배후선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조병옥(1963)은 이 사건이 이순탁, 백남운의 사회주의 강의 편중에 학생들이 반발하여 일어났다고 회고했다. 한편 일제는 맹휴 초기에 학생들이 “府內某處에 總本部를 두고 西洋 사람들의 (非理?)를 사회적으로 폭로시키고자 目下 모든 준비”에 착수하자 “背面에 어떤 思想分子的 策動”이 있는 것 같으며 “內査에 착수”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후에도 신간회경성지회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학교당국을 비난하자 이들을 즉각 문책하는 등 시종 학교를 두둔했다(『조선일보』 1929. 9. 1, 9. 20). 그래서 맹휴 이후 학교당국과 이순탁 교수는 사회일각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도 받았다(한양학인, 1931).

36) 〈피고인 이순탁 3회〉.

37) 평남 龍岡郡 용강면 義山里 출생. 용강警校, 평양고보, 연전상과(1921~1924)를 거쳐 1927년 3월에 京都帝大 경제학부(1924~선과, 1925~본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 전주사립新興학교 교사(1927. 4~1928. 3)로 근무하다가 연전상과에 부임(1928~강사, 1930~전임강사, 1931~조교수, 1932~교수)했다. 연전 3학년 때 이순탁에게 보훈론, 창고론을 배웠다. 京大재학중 기독교사회주의에 공명하여 구세군 세례도 받았으나 河上鑿의 강의를 듣고 그의 『유물사관연구』 『사회문제연구』 등을 읽으면서 “연구방법론으로서의 맑스주의 이론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다. 경대재학중인 1926년 12월에는 동아일보사의 현상논문 공모에 당선하기도 했다(노동규, 1927. 〈農村振興策如何(13)〉 『동아일보』 1. 1~1. 22). 연전에서는 상업지리(1929. 4~1932. 3), 교통론, 상업영어, 상업정책(1930. 4~1938. 3), 재정학(1929. 4~1932. 3), 농업경제(1929. 4~1938. 3), 은행론(1932. 4~1938. 3), 화폐론(1932. 4~1938. 3), 창고론(1937. 4~1938. 3), 상업영어 등을 강의했다.

38) 본적은 충북 영동. 경남 진주에서 출생(1900년). 서울에서 永信小學校, 중앙학교, 연전상과(1923) 졸업. 1923년 8월 도미. 휴론대(Huron College, 1926, 학사), 뉴욕대(New York Univ. 석사 Cable Landing Policy, 1927. 박사 1930. Member of Commercial Teachers Association)를 거쳐 연전상과에 부임(1930~전임강사, 1931~조교수, 1932~교수)했다. 寡言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미국인의 신임을 얻어 줄곧 학교행정(1932~Assistant Treasure, 1934~회계계 Treasure)에 관여했다. 유학중 이순탁의 同志會에 가입 활동했고 그래서 경찰은 미국인 후원으로 현재의 지위를 얻은 데에다 親美排日思想이 농후하여 진정한 전향은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東京帝大 연구출장(1938. 3~9) 후 同友會사건으로 기소유예(10. 29) 받았고, 강단을 떠난 후는 회계제로만 근무했다. 상업실천, 상업영어, 타자 등 기술과목을 가르쳤다. 해방 후에는 조선은행총재, 재무장관,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며 이순탁 정권에 참여했다.

39) 1902년 서울생으로 서울 한남학교, 보성고보, 연전상과(1923)를 졸업한 후 전남 고창고보 영어교사(1923. 5~8)를 지내다 1923년 11월 도미하여 마세츄세츠주 마운트합본중학, 오하이오주 마운틴유니온대(Mountain Union College, 1925. 10~1927. 6, B. A.), 시라큐스대(Syracuse Univ.

1930년대의 상과 교수진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외형상으로는 미국과 일본,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유지했고, 학문경향도 맑스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관, 학문관이 공존하며 내면에서 각축하는 양상을 보였다.<sup>40)</sup> 그렇지만 이들 미국유타파는, 비록 실무적·기술적 학문의 수준에서는 당대 일급의 학자들이었지만, 민족문제·계급문제를 둘러싸고 사상계, 학계 전체가 분화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학문의 성격상(실무적 기술적) 상과 학풍을 좌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sup>41)</sup> 따라서 1920년대 말까지 반일적 입장으로 봉합된 채 내면에서 갈등해 온 맑스주의 자본주의의 두 학문관은 더욱 前者 쪽으로 기울었다. 연전 문과의 唯心的 경향과 달리, 상과는 교수들의 사상이 “대체로 唯物論으로 馳驅”하여 延專에서 “장래를 기대케 하는 학생층의 맑스意識과 교수층의 左傾指導가 他科에 비하여 가장 열렬하며 견실하다”<sup>42)</sup>는 평가는 이를 말한 것이었다.<sup>43)</sup> 1930년대의 상과 교수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그들 내

1927. 9~1928. 6, M. A)에서 공부했다. 1929년 2월 귀국, 경성상가미성社 서기(1929~1932)로 일하다 연전상과에 부임(1932. 4~강사, 1933. 4~전임강사, 1936. 4~조교수, 1938. 10~교수)했다. 경찰은 조사중 前非를 뉘우쳐 개전의 정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연전에서는 전임강사 때 상업부기, 상업영어, 영어, 조교수 때 상품학, 상업지리, 마케팅, 상업영어, 타자, 조교수 때 상품학, 은행부기, 상업영어, 영문부기를 강의했다.

40) 예전대 최순주는 理論보다 實際에 치중하여, ‘書齋派 맑시스트들’에게 염증을 냈던 反맑시스트였다. 델더스와 아메리카니즘의 숭배자로서 만사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식사도 합리화의 고장인 미국식을 고집했고(한양학인, 1931), 상과의 교과목도 좀더 실무 실용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41의 박사논문). 임병혁도 P. Kenneth Lim이라는 미국이름을 썼을만큼 미국화한 인물이었다.

41) 최순주가 뉴욕대학 교육대학원(School of Education)에 낸 박사학위 논문은 『延專商科의 敎科目 調整에 관한 연구(A Suggested Commercial Curriculum for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of Korea)』였다. 말하자면 통제학을 1학년 때 가르칠지 2학년 때 가르칠지를 연구한 상업교육 전공자였다. 『新東亞』 44호(5권, 6호 1935. 6)에 실은 〈販賣員의 訓練을 어떻게 할까?〉라는 글은 그의 학문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일제의 사상탄압하에서 官學에 저항하며 당시의 민족문제, 계급문제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했던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의 학풍과 잘 맞지 않고, 상과학생들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이 시기 이순탁, 백남운은 한국지성계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東光』 29호(4권 1호, 1932. 1. 1)는 언론계, 비언론계를 막론하고 한국의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大合同日報”라는 신문을 만든다고 가상한 후, 당시 각 신문사 ‘現職記者’들의 인기투표로써, 그 간부진을 ‘新聞人(前現職記者) 內閣’, ‘外人(非言論人) 內閣’으로 나누어 公選했는데 이 때 外人內閣의 經濟部長에는 이순탁, 백남운 2인이, 廣告部長에는 최순주가 李康賢, 李屍煥과 함께 뽑혔다. 이순탁, 백남운과 최순주의 학문경향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랐던 것이다. 조기준은 “당시(1930년대) 경제학자로서는 백남운이나, 이순탁이나 할 정도”로 이들이 한국경제학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다고 회고했다(조기준, 1992, p. 523).

42) 한양학인(1931).

43) 鄭光鉉은 1930년 4월 그가 연전강사로 부임했을 당시, 상과에서는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가 맑스주의적 공산혁명이론을 강의했고, 학생들은 경제연구회를 통해 사회과학에 관한 독서회, 강연회, 발표회를 여는 등 “흡사 共產大學같은 분위기”라서 자기같은 사람은 “非常識적인 인물로 취급받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그는 “이 학교에서는 맑스주의 경제학 내지 맑스주의 법률학을 연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1933년 4월경부터 맑스주의 법학 연구에 몰두했다고 말했다(鄭光鉉 1회 6. 18)). 강요에 의한 진술이었겠지만 분위기의 일단을 전달한다고 하겠다.

부의 세계관 학문관의 대립을 해소하는 한편 그 연장선상에서 일제의 과학적 조선 연구 확산, 민족주의 右派의 개량화라는 사상계, 학계 동향에 대응해 갔다. 그렇지만 이 때는 1920년대처럼 학교밖의 사상단체, 사회단체와 연계한 실천운동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931년 9월의 만주사변, 11월의 경성제대 학생들의 反帝同盟 사건, 1934년 李載裕 사건에 연루된 경성제대 三宅麿之助 교수의 구속사건과 각급 학교의 讀書會 사건에서 보듯이 사상탄압이 강화되었다.<sup>44)</sup> 따라서 교수들의 대응은 '연구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학문적 학술적 대응일 수밖에 없었다.<sup>45)</sup>

이 시기 상과 교수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개인적 연구를 통해 일제의 조선인식론과 자본주의의 학문관을 비판하고 맑스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朝鮮認識論을 제기한 일이었다. 둘째는 상과에 '商業研究室'을 창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자신들을 중심으로 朝鮮經濟學會라는 '朝鮮學術部隊의 參謀本營'을 창립하여 일제의 官學연구에 집단 대응한 일이었다. 현실인식의 방법론, 세계관, 학문관을 둘러싸고 학계 전체가 민족해방 독립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진영과 이를 거부하는 진영으로 그 戰線을 형성하자 연전상과는 전자적 입장의 메카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1930년대에 상과의 이러한 학풍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간 학자는 白南雲이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의 사회과학계를 부르주아 과학의 위기를 말하는 '混頓'과 맑스주의 과학의 발전을 의미하는 '清算'이라는 두 경향이 대립한 '批判的 清算期'로 규정했던 그는 부르주아학계와 일제 관학의 조선연구에 대한 전면 비판에 나섰다. 문헌고증주의, 편력학도적 역사학과, 國史學派, 조선의 躍進을 검증하려는 統計주의와 실증주의, 관념론적 문화사관 등을 방법적 토대로 한 官學的 학문관과 대공황을 전후하여 급속히 개량화한 부르주아 학문관에 대항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日鮮同祖論, 滿鮮史觀, 조선특수사정론에 입각한 정체성론, 타율성론, 封建制不在論 등 植民史觀과 일제의 文明施惠論을 맑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하나하나 논박하였다. 조선경제사의 방대한 史料를 섭렵하고 유물사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관한 세계경제학계 역사학계의 첨단이론을 독창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맑스주의 입장에서 조선사회의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종래의 官學的 부

44) 박한용, 1991. <경성제대 반제동맹사건 연구>『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김경일, 1993. 『이재유 연구』 창작과비평사.

45) 기독교 학교인 延專의 방침이기도 했다. 연전은 反기독교 사상인 맑스주의를 연구하는 것은 용인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선전 실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사상전향록』 주 121 참조). 과장 이순탁도 직책상 또 교수들의 개인적 불행을 막기 위해 백남운 노동규에게 "연구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말 것"과 교과서 선택, 필기내용, 동사무 배포, 시험문제 출제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여러 차례 당부했다(『피고인 이순탁 3회』).

르주아적 한국사연구에 “일대 청산을 畢한”<sup>46)</sup> 『朝鮮社會經濟史』(개조사, 1933. 9)와 『朝鮮封建社會經濟史(상)』(개조사, 1937. 11)는 그 대표적 성과였다. 말하자면 그는 맑스주의 경제이론과 역사이론에 입각하여, 그 동안 일제가 심혈을 다해 구축한 그 리하여 식민지 지배의 이데올로기로서 그 정치적 역할을 다해 온 정체성론 타율성론같은 ‘조선특수사정론’을 부정하고 조선역사가 세계사의 일반법칙에 의거하여 당당하게 발전해 왔음을 이론 실증 양면에서 과학적으로 논증했던 것이다.<sup>47)</sup> 이로써 백남운과 연전상과는 한국·일본의 맑스주의 學界, 나아가 일반 사회과학계와 역사학계 전체의 학문적 수준을 압도하며 조선학술계의 대명사, 혼돈과 위기의 조선학계를 지켜갈 학문적 보루, 조선경제사 연구의 매카가 되었다.<sup>48)</sup>

1930년대에 백남운과는 다른 차원에서 상과의 경제학풍을 이끈 인물은 이순탁이었다. 그는 1934년 9월에 간행한 『最近 世界一周記』(한성도서주식회사)<sup>49)</sup> 등 일련의 논저에서 맑스주의 경제이론이 가장 과학적인 이론임을 시종 확신했고,<sup>50)</sup> 그 연상선상에서 자신의 독립국가건설론을 제시했다. 무산자가 합법적으로 정당을 만들고 그 이념을 자유롭게 선전하여 선거로 政權을 장악한 후 정권의 힘으로 주요생산기관의 國有化, 생산물의 능력에 따른 공평분배를 실현하여 자본주의의 최대모순인 貧富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방안이었다. 따라서 그는 무산자가 자신의 정치이념

46) 김광진, 1933. <백남운 교수의 新著 『조선사회경제사』> 『동아일보』 9. 21. 백남운은 1930, 1931년경부터 유물변증법 연구에 본격 나섰고, 1933년에 『조선사회경제사』를 출판할 당시 이미 그 이론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고 술회했다(〈피고인 백남운 2회〉).

47) 한국의 사상계와 학계에서 백남운이 차지한 학설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김용섭, 1966. <한국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31, 방기중(1992), 이준식(1993), 이병희, 1994. <미완의 조선봉건사회론> 『역사와 현실』 12 참조.

48) 윤기중(1989). 연전은 특유의 민족주의 자유주의의 학풍을 배경으로 조선학계의 위상과 학교 명예를 높인 백남운 교수를 여러 면에서 보호 지원했다. 특히 이순탁은 자신의 세계일주기간 중, 맑시스트라서 곤란하다는 일부 학교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억겸 학감과 함께 그를 상과과장대리로 추천 임명했고, 1938년 봄에는 지난 10년간 ‘연구자의 태도’를 지키며 연구와 교직에 몰두하여 건강을 해친 백남운에게 휴가를 주자고 건의하여 그해 1학기부터 휴가를 주기로 하였다.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출판 직후인 1937년 12월 9일에는 경성역 식당에서 노동규, 홍승국, 유억겸, 최순주 등 상과 교수 10여 명과 함께 백남운을 초대, 출판기념회를 열어주기도 했다(〈이순탁 3회 6. 16〉, 〈피고인 이순탁 3회〉).

49) 1933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7개국을 여행한 후 河上肇의 『祖國을 돌아보며』를 염두에 두고 쓴 여행기이다. 대공황 후 자본주의의 위기, 런던경제회의의 무산과 2차세계대전 발발전망을 밝히고, 일본·이태리·독일에서 상상 밖으로 강력화한 파시즘 현상과 공산당, 노조운동, 유대인에 대한 사상탄압을 고발하며 思想의 자유, 主義의 자유경쟁을 절규한 일종의 문명비판 서이자 “세계정세를 진단하고 앞날을 전망한 연구서”이다(윤기중, 1993). 이순탁의 저술에 대해서는 홍성찬(1994) 참조.

50) 그는 아담스미스에 따라 ‘경제적 자연법칙’, ‘일반법칙’을 찾으려 한 고전학파와 어떤 민족이 어떠한 ‘발전단계’에 속했는가를 규명하고 그 ‘문화적 특수성’을 발견하려 한 역사학과 경제학은 바람직한 방법론이 아니며, 맑스주의 경제학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론이라고 보았다(이순탁, 1935. <特殊事情에 鑑한 經濟學의 朝鮮의 研究論> 『조선일보』 7. 8).

을 자유롭게 선전할 思想의 自由,<sup>51)</sup> 그 전제로서의 민족독립을 갈망하였고, 이런 입장에서 민족독립을 위한 조선인 내부의 좌우합작 민족협동을 강조하였다. 그가 新幹會에 참여한 배경이자 그 해소를 아쉬워한 이유였다. 요컨대 이순탁은 정치적 민주주의, 사상의 자유, 좌우합작, 계급협조, 민족협동을 중시한 맑스주의 진영내의 일종의 社民主義者였다.

이상의 백남운 이순탁과 노동규는<sup>52)</sup>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토론 공유하며<sup>53)</sup> 이 시기의 사상계, 학계 상황에 대응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학계는 이런 개인적 대응만으로는 일제의 관학을 극복하기 어려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 특히 1930년대 전반기는 '한국근현대학술사의 발흥기'라 할만큼, 학문적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학술단체가 설립된 시기였다. 鄭寅普(연전 문과), 安在鴻 등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은 1933년 후반에 朝鮮學運動을 전개했고, 실증사학(량계流)과 순수학문 등 전형적인 관학적 방법론과 부르주아 학문관으로 무장한 이병도 등 일본 국사학파의 후진들은 1934년 5월에 震檀學會를 창립하였다. 사상계, 학계가 학술단체 학술운동 수준에서도 분화했던 것이다.<sup>54)</sup>

이런 상황에서 상과 교수들은 1928년에 四方博 등 京城帝大法文學部 교수들이 법문학부에 朝鮮經濟研究所를 설립하여 일제의 조선지배를 합리화하는 등 계국주의 학풍을 강화해 가자 이에 대응하여 1929년 10월 상과에 '商業研究室'을 설치하는<sup>55)</sup> 한편 1933년 6월에는 당시의 언론이 '조선 학술부대의 참모본영'이라 부른 朝

51) 그는 공산주의를 자유롭게 선전 토론하고 그 문헌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영국을 방문하여, 그곳에 思想의 위기가 없는 것을 보고 "사상은 자유로 토론을 시켜 놓아야만 차라리 危險이 없다"고 절규했다(이순탁, 1934. 『최근 세계일주기』 한성도서주식회사. p. 200).

52) 노동규는 京大재학시절부터 "1935년경까지 新進의 이론적인 左翼서적은" 대개 눈으로라도 훑어보았을 만큼 맑스주의 이론을 가장 과학적이라고 확신했고, 맑스주의 견지에서 조선인의 정치·경제·사회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第一義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공명하는 學徒로서" 이를 연구 발표했고 그 결과 "다수의 맑스주의자가 나와 실천운동을 해주길 희망"하기도 했다((피고인 노동규 2회)). 노동규의 주요 논저는 임영태, 1985. pp. 39~40 참조.

53) 백남운은 "이순탁으로부터 노동가치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그가 맑스경제학설에 공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노동규에 대해서도 "1930년경 일본의 어느 경제잡지에 가치론에 관한 논쟁이 발표된 것을 보고 그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듣고" 공산주의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피고인 백남운 3회)). 물론 세 교수가 맑스주의적 입장을 표출한 정도는 조금씩 달랐다. 1940년 예심판사의 증인신문(주 136)에서 조은상, 김창식은 세 교수 가운데 백남운이 맑스주의적 색채가 가장 농후했고, 다음은 노동규이며, 이순탁은 3명 중 가장 薄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의두, 김진수는 이순탁이 京大 재학중에는 좌익적 색채가 농후했다고 들었으나 연전 교수가 된 후 태도가 변해(사상전향하여) 온건해 졌다고 증언했다.

54) 방기중, 1992. pp. 112~117 참조.

55) 문과·상과·수목과에 연구실을 설치키로 한 학교당국의 방침에 따라 1929년 10월 9일 商科會에서 설립을 결정했고, 연구실 주임에 노동규를 임명했다. 상과 교수들은 1929년 10월 10일경에 상업연구실 설립기념으로 각자 소지한 도서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이순탁은 『사회문제 연구』(6책, 월간지를 합책한 것, 河上肇), 『사회주의연구』(2책, 山川均)를, 백남운은 『조선농회보』(매월 1책씩 기증하기로), 노동규는 『經濟論叢』(경도제대, 창간호부터 당시까지 소지한

鮮經濟學會의 창립을 주도하고 그 운영에도 적극 나섰다.<sup>56)</sup> 주지하듯 이 학회는 反官學 反日 입장의 조선경제학자를 조직화·집단화하여 京城帝大등 官學의 조선경제연구에 대항한다는 목표아래 한국사회과학계의 '정예분자' 27명이 발기하여 1933년 6월 9일에 창립한 학술단체였다. 1935년 1월 1일 현재 46명의 회원이 활동했던 이 학회는 집행기관인 간사회(대표간사 1인, 서무간사 1인, 재무간사 2인)와 3개 위원회(재정, 조사, 사업)를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백남운, 노동규, 유억겸,<sup>57)</sup> 金度演<sup>58)</sup> 등 연전 교수가 중심역할을 맡았다.<sup>59)</sup> 모두 6회 실시된 통상보고회에서도 이순탁, 최순주, 노동규, 백남운 등 연전교수가 4회나 보고했고,<sup>60)</sup> 상과의 임병혁, 정광현은 일반회원으로서 활동했다.<sup>61)</sup> 상과 교수들은 이 학회를 통해 학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제 관학의 경제학 연구에 저항했던 것이다.<sup>62)</sup>

것 전부, 앞으로도 매월 1책씩 기증하기로)을 기증했다. 상업연구실은 연구실 예산으로 1930년 10월 20일에 노동규가 신청한 『소비에트聯邦事情』(滿鐵調査課)을 구입기로 한 이래 1938년 3월까지 『世界景氣의 분석』 등 2천 5백 책의 도서를 구입했다. 상업연구실은 機關誌 발간도 계획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연세대학교 經濟研究所의 前身이다.

- 56) 백남운은 “조선경제학회 幹事長을 지냈는데, 이는 1933년 6월에 나와 노동규가 발기하여 經濟科學의 연구를 위해 조직했으나 \*\*\*\* (판독불능: 1936?)년 12월 임의해산했다”고 말했다(백남운 1회 5. 25). 창립시 이순탁은 세계일주 중이었다. 조선경제학회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5. 1. 1, 방기중, 1992, pp. 112~117 참조.
- 57) 동경제대 법률학부에서 법학사(英法兼修, 1919~1922. 3)를 받고 대학원에서 법학을 연구하다 1923년 4월 이순탁과 함께 연전에 부임했다. 1924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상과 교수로서' 法과목을 강의했던 그는 1938년 8월 25일 총임구락부사건으로 사직할 때까지 學監(Dean, 1924~), 부교장(Vice President, 1934~)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인 교장역할”을 수행했다(〈俞億兼〉 11. 2). 그가 학회의 재정위원회 상무가 된 것은 그를 통해 延禧당국의 재정지원을 기대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 58) 慶應대학(1922), 콜롬비아大(1927, M. A), 아메리칸大(American Univ. 1931, Ph. D)를 거쳐 당시는 연전 강사(1933~)로서 문과에서 經濟原論을 가르쳤다.
- 59) 조선경제학회(1935. 1. 1. 현재) 간사회는 대표간사 백남운, 서무간사 노동규, 재무간사 이극중, 김광진 등으로, 위원회는 재정위원회상무 유억겸, 조사위원회상무 이여성, 사업위원회임시상무 김도연으로 구성되었다. 김광진은 1931년 현재 연전 강사였다.
- 60) 통상보고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회 이순탁(세계일주와 각국의 경제상황), 2회 최순주(상업교육에 대하여), 3회 이여성(조선인 공업의 제문제), 4회 노동규(조선공업의 현단계에 대하여), 5회 백남운(조선사회경제사? 방법론), 6회 이극중(연쇄점 이론에 대하여).
- 61) 〈임병혁 12. 2〉, 〈鄭光鉉 1회〉. 정광현은 평양고보 졸업 후 1919년에 독일, 동경사립정칙영어 학교, 사립명치학원중학부, 早稻田대학교등학원理科, 岡山6高 문과를 거쳐 東京帝大 법학부(1925~1928)에서 법학사를 받았다. 동경제대 경제학부에 재입학했으나 1학기만에 귀국(1928. 9), 승실전문 강사(법학, 경제학, 정책학)가 되었고 곧 사직(1929. 3)한 후 동경제대 田中耕太郎 교수 밑에서 商法을 연구했다(1929. 10~1930. 2). 그후 윤치호가 유억겸에 추천하여 연전상과에 부임(1930. 4~ 강사, 1936~ 전임강사)했다. 1935년 1월 하순에는 李載裕 사건에 연루되어 경기도경에서 3일간 조사받기도 했다. 평양 地主(청룡수리조합장) 鄭在命의 3남으로 윤치호의 사위였다. 주 43 참조.
- 62) 백남운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한 모든 학술단체를 결집한, 私立專門學校 研究室과도 연계를 갖는, 조선학계의 학술총본부에 해당하는 '中央아카데미=學術院' 창설도 구상했다(백남운, 1936. 〈學術基幹部隊의 養成-中央아카데미 창설〉 『동아일보』 1. 1, 방기중, 1992.



2) 經濟研究會의 學術경향과 활동

1930년대 초에는 맹휴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던<sup>63)</sup> 경제연구회도 활동을 재개했다. 사상계, 학계가 동요 분화하고 교수들이 반관학·반자본주의적 학풍을 강화한데 영향받아 학생들의 학풍도 변화하였다.<sup>64)</sup> 1931년 4월 22일 경제연구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 3조의 연구회 목적에 경제이론과 실제문제의 '實踐'을 추가하고 토론회와 강연회 개최를 신규사업으로서 확정했다.<sup>65)</sup> 1930년대 초의 한국사회를, "\*\*(大正?)민주정치 동요의 초기"이자 "제3期的 공황의 前夜"라서 사회적 모순과 계급대립 사상경향이 첨예화 極端化하지 않았던 1920년대 후반기와 달리, 세계공황 등 "세계적 정세에 坐視기 難한" 변화가 일어난 "有史 이래의 질풍노도적 混亂期"라고 규정된 이들은 그간의 "미온적이고 빈약"했던 활동을 차제에 "義憤에 발랄한 현대학생의 진지한 科學的 연구"로 고양시켜 가기로 하였다.<sup>66)</sup> 여기서 科學的이란 맑스주의적이라는 의미였다. 아래는 『경제연구』 3호 권두언의 일부이다.

pp. 116~117). 1930년대 중반 연전상과의 學術史的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 63) 대규모 제적으로 1930년 3월의 상과졸업생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연희전문학교, 1939. 『연희전문학교일람』 p. 76). 1928, 1929년도 졸업생은 19, 21명이었다. 『經濟研究』도 휴간되었다. 연전생들은 盟休 이후에도 광주학생운동 및 맹휴관련 학생의 석방 복교를 요구하며 동맹휴학했고(『조선일보』 1930. 1. 28, 1. 30), 1930년 11월 8일에는 경신학교 강당에서 安在濤(조선일보사장) 洪愛施德(형성신학교 교사)이 축사하고, 조선학생회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축문을 보내 축하하는 가운데 연전학생회 창립 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京西高秘』 5. 10). 경찰이 사전압수한 축문은 "총체적으로 加重되는 박해를 일축하고 7년간 싸워온 諸君이여, 기념일을 有意義하게 마치라", "同志여, 지난날 투쟁은 弱했다. 前에도 그랬듯이 봉건적 잔재물과 決死的으로 勇進猛闘하여 필연적 승리있기를"이었다. 1931년 3월에는 수업료 감하도 결의하였다(『조선일보』 1931. 3. 1).
- 64) 김규삼은, 1933년 여류방학에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 校訂을 위해 상과생 李定業(주 70)을 데리고 도입했으며, 1937년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출간 때는 李墻(?), 金昌植, 林鍾培, 金奎三에게 원고를 정서시켰고(100페이지 분량의 대학 노트 18권 정도) 이들 4명을 데리고 도입(교정보러)하러 했으나 출국이 어려워 單身 도입했다고 증언했다. 학생들은 이 두 책이 나오자 학교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베풀었다. 전문학교 상과에 巨物學者들이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학문적 자존심을 크게 높였던 것이다. 한편 노동규는 1932년 여류방학에 서강백, 백남환, 이의두, 조광휘, 김기정, 황시연 등 연전상과 학생 24명과 기타 인사들의 도움으로 南鮮, 中鮮, 北鮮의 1,256農家(非農家 95戶 포함)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朝鮮農家經濟實相調査解剖』 『東方評論』 1-3, 1932).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들의 연구를 돕고 그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학풍을 배웠을 것이다. 1940년에 예심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 조은상, 김창식, 김진수 등은 교수들의 영향을 받아 상과생들의 일반적인 풍조가 맑스주의로 기울었다고 증언했다(주 136). 한편 백남운은 1934년 강의시간에 『조선사회경제사』를 해설한 바 있고, 이순탁은 그의 『최근세계일주기』가 출간되자 그 책 집필에 영향을 준 하상조의 『祖國을 돌아보며』를 수업시간에 소개하였다.
- 65) <이순탁 4회>. 강연회는 백남운의 강연을 시작으로 출범했다(표 4). 토론회 件은 정기총회(1931. 12. 16)에서 토의하여 집행위원회에 일임했는데 위원장 李錡표 등 신입집행위원회는 研究班이라는 이름으로 토론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66) 서강백, 1932. <속간사> 『경제연구』 3.

인류역사는 사회와 사회 간 투쟁 \*\*과 反動, 전쟁과 평화, 침체, 몰락, 발전의 時間的 交替의 역사였다 한다. 더구나 세계대전 후 폭풍우적 危機의 사회상은 미증유였을 것이다. 外로 국제간 熱火的 갈력, 內로 계급간 필사적 투쟁, 29年來 세계적 대공황, 각국 화폐제도 大動搖, 끊임없는 大小政變, 이 모든 사회현상은 亂麻같고 돌발적이며, 방대한 多面性和 非合法性 같이 표현되나 그들은 물질적 社會生産力의 무한한 발전에 대응된 社會關係! 그 總和에 의한 經濟的 구조에서 萌芽되고 成長하며 消滅된 역사의 현실적 과정에 필연적으로 산출된 것 이외 아무것도 아니라 한다.<sup>67)</sup>

1차대전 후의 危機的 사회상은 아무 법칙성 없이 돌출된 사건들로 보이지만 실은 물질적 生産力 發展에 대응하여 社會關係가 변하고 그 總體로서 경제구조 전체가 內面에서 변동함에 따라 맹아 성장 소멸해온 필연적 역사과정에 다름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말하자면 생산력, 생산관계, 하부구조, 상부구조, 역사발전의 법칙성 등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현실의 인과적 필연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경제연구회는 경제의 科學的 연구를 '大綱領'으로 상정했고, 역사발전 법칙(理法)에 따라 현실을 연구하고, 이를 『경제연구』에 발표하여 인류에게 "진리의 正路"를 걷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sup>68)</sup>

경제연구회의 분위기는 1933년을 경계로 더욱 맑스주의적으로 기울었다.<sup>69)</sup> 1933년 10월에 경성트로이카 그룹의 李載裕가 研究部長(표 1) 李東壽를 만나 延壽의 좌익그룹 조직책임자로 일할 용의를 타진한 것,<sup>70)</sup> 그리고 역사발전의 필연적 귀결점을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발전에서 찾은 것이 단적인 예였다.<sup>71)</sup>

대공황을 거치며 이처럼 認識의 擴大 深化를 겪은 경제연구회는 연구회 안팎에

67) 이기표, 1932. <권두언> 『경제연구』 3.

68) 이기표(1932). 이 시기 '과학적'이라는 말은 맑스주의를 지칭하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했다. 백남운은 맑스주의를 '新興科學'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69) "1933년이래 경제연구회가 종래 연회학생회가 실시해온 대내외 강연회와 연구발표회 등 실천 운동을 인계받아 활발하게 실천하면서 延壽은 흡사 共産大學처럼 보일 정도였다"((이순탁 4회)) 참조. 경찰에서의 진술이라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 때를 전후하여 경제연구회의 사상적 분위기가 일정하게 변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주 43의 정광현 진술 참조.

70) 김경일, 1993, pp. 84~85. 1933년 10월에 이동수는 시험준비로 바쁘니 잠시 유예해 달라고 했으며 그 후 연락이 끊겼다. 김경일, 1993, p. 47에는 연건 조직책으로서 이동수와 李定業을 적어 놓았는데 이정업은 경제연구회 출판부원으로서 이듬해에 출판부장이 된 핵심멤버였고 1938년 현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수배중이었다(〈京西高秘 5. 10〉). 이재유그룹은 1936년에도 이동수와 접촉을 시도했다(이애숙, 1991. <이재유그룹의 당대건운동(1933~1936년)>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 한길사, p. 166). 이동수는 1938년 현재 일본 중앙대학에 재학중이었다.

71) "국제주의와 국가주의와의 相懸, 몰락과 발전의 二樣의 경제체계의 兩立, 예각화한 兩大진영의 격렬한 ××, 태산명동서일필결의 각종의 국제회의의 氣息奄奄한 重態 등등 삼척동자도 세계의 동향을 掌中에 分辨하여 未久의 장래를 점치고 있다"((권필후기) 『경제연구』 4) 참조.

〈표 2〉 연구발표회

일시	제목	발표자	학년	입회자
1935. 6. 6	朝鮮農村經濟問題	李義甲	1	노동규
"	支那社會機構에 대하여	李致九	3	"
"	나치스獨逸의 反유대인政策의 本質的 意義	崔炳準	2	"
"	金本位의 將來	金斗七	3	"
1936. 6. *	宇垣이즘의 解剖	林鍾培	2	
"	인플레이션의 本質을 檢討	高丙獻	3	
"	朝鮮工業化의 過程	金昌植	2	
"	資本主義의 墮性	金大均	2	
"	米穀自治管理법안과 그 영향	高正得	1	
"	紙幣인플레이션 傘下의 階級的 高찰	李敬熙	2	
1936. 12. 11	滿洲移住의 朝鮮零細農民	李 墉	2	백남운
"	國際資本市場에 對한 小考	金昌植	1	"
"	現代學生論	吳義三	2	"
"	스포츠에 대한 약간의 高찰	최병준	3	"
1937. 2. 4	低金利정책과 赤字公債정책에 관한 高찰	閔丙文	3	정래길
"	現下 物價問題에 대한 高찰	朴潤奎	1	박효삼
"	支那에서의 資本主義의 발전	崔淳仲	3	백남운
"	紙幣인플레이션의 階級的 高찰	李敬熙	2	노동규
"	蔣介石의 中國統一工作의 裏面相	최병준	3	이순탁
1937. 2. 8	唯物史觀에서의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에 관한 高찰	李元九	3	백남운(審査)
"	아세아적 生産樣式의 意義	金斗七	3	"
"	朝鮮電力統制論	金奎三	1	"

자료: 〈京西高秘 3. 29〉, 〈의견서〉. \*는 주 72.

서 두 가지 사업에 착수했다. 첫째로 1931년 4월의 회칙개정에 근거하여 연구발표회, 강연회, 기관지발행 등 학술활동에 적극 나섰다. 研究發表會는 1932년 12월 19일에 研究班이라는 이름아래 토론반을 운영기로 한 점으로 보아 1933년 초부터는 실시된 듯한데 확인된 내역은 〈표 2〉와 같다.<sup>72)</sup> 제목에서 보듯이 일제강점하의 한국경제현실, 일제정책의 기만성과 대공황 후의 세계경제동향, 파시즘현상, 국제정세변동을 민족주의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sup>73)</sup> 학내의 講演

72) 연구부가 제목, 일시, 장소를 기획 공고한 후 원고를 과장에게 제출하여 학술적 수준과 時局저촉 사항 등을 심사받아, 과장이 지명한 지도교수의 입회 지도아래(발표태도, 理論의 正否, 研究의 深淺 등) 실시했다(〈피고인 이순탁 4회〉, 〈이원구 2회〉). 어떤 경우는 내용이 '불온'하여 학교당국이 중단시키기도 했다. 1936년 6월 초에 계획했던 林鍾培, 이경희 등의 발표회가 그에였다(〈조은상 3회 9. 17〉, 〈의견서〉).

〈표 3〉 學內講演會

일 시	연 계	연 사	직 위
1935. 2 중순	國際主義와 國民主義에 대하여	申基碩	京城帝大 연구생
5. 20	時事 憲法問題	俞鎮五	普專 교수
9. 17	伊에 紛爭과 戰爭의 危機	咸尙勳	조선일보 편집부장
11. 15	最近의 中國정세	洪陽明	조선일보 外報部長
11. 29	亞細亞的 生産樣式 問題의 朝鮮史 適用에 관한 비판	백남운	연전 교수
1936. 2. 14	北支문제와 日滿支의  경제관계	澁谷禮治	조선은행 조사과장
5. 14	廣田內閣의 財政政策	徐 樞	조선일보사 주필
6. 29	영국의 低金利 工作에 대하여	鈴木武雄	경성제대 교수
10. 2	最近 世界經濟의 하나의 見方	山口正吾	京城高商 교수
11. 12	中國 政治形勢	呂運亨	중앙일보 사장
1937. 1. 25	集團의 安全保障 問題	홍양명	조선일보 외신부장
2. 22	北支視察여행의 感想	森谷克己	경성제대 교수

자료: 〈京西高秘 3. 29〉, 〈의견서〉.

〈표 4〉 學外講演會

일 시	연 계	연 사	직 위
1932. 6. 3*	朝鮮史觀 樹立의 提唱	백남운	연전상과 교수
1934. 5. 하순	나치스獨逸의 見聞談	이순탁	연전상과 교수
1936. 12. 3	제3회 조선남녀전문학생총연		
1936. 12. 12	대회	노동규	연전상과 교수
-	世界貨幣制度의 장래	尹行重	普專 교수
-	景氣政策에 대하여	洪陽明	조선일보 外報部長
	集團의 安全保障 機構의 終焉		

자료: 〈京西高秘 3. 29〉, 〈의견서〉. \*는 『경제연구』 4, 속기록에 따름. 이순탁은 천도교 崔麟의 비서역인 李晶燮이 함께 강연했다고(연계는 불명) 진술함. 장소는 1, 2회 YMCA, 3, 4회는 府民館과 조선일보 강당.

會<sup>74)</sup> 내역은 〈표 3, 4〉와 같은데 학내강연 연사는 사회주의, 좌우합작 진영의 거물 급인사로부터 조선은행, 경성제대 등의 정책당국 실무자와 官學者들, 우익성향의

73) 예전대 李墻은 일제의 만주이민정책을 대공황 후 위기에 봉착한 일본자본주의의 日滿경제불력 강화정책으로 이해했다. 만주를 일본의 원료자원공급지, 공업상품판매시장, 식료공급지로 만들려 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조선영세 농민이 이주대상이 된 것은 강점이래의 조선농촌경제 파탄, 농민빈궁화 문제를 해소하고 그 공간에 일본농민을 이주시켜 일본의 노동문제도 해결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았다(〈의견서〉). 최병준의 스포츠에 관한 발표는 손기정의 올림픽 제패(1936. 8)를 맞아 민족의식 고양을 위해 택한 주제였다(〈의견서〉).

74) 연구부가 연사와 교섭하여 내락을 받고 연사의 이름, 경력, 사회적 지위, 사상경향, 연계 등을 학과장에게 보고한 후 학감의 허가를 받아 실시했다(〈이순탁 3회〉, 〈피고인 이순탁 4회〉).

민족진영 인사까지 다양했지만,<sup>75)</sup> 연제는 대공황 후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류였다. 학외강연은 네 번 계획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두 번밖에 실시하지 못했다(표 4).<sup>76)</sup> 이 밖에 상과에는 학생들의 상식함양과 학풍진작을 위한 교수들의 科外강연도 있었다.<sup>77)</sup> 맹휴이래 휴간된 기관지도 1932년에 『경제연구』 3호로써 속간했다. 續刊辭가 1, 2호를 “科學的 연구의 심혈의 소산”이라 하기에 “미온적이고 빈약”했다고 평가하면서 ‘과학적 잡지’를 표방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관지의 성격은 1920년대와 달리 훨씬 민족적 맑스주의적으로 기울었다.<sup>78)</sup> 특히 연구회가 맑스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 4호(1933. 2. 27)는 3호와 달리 맑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현실을 분석한 굵직굵직한 주제의 논문을 실고, 용어해설項에서 이데올로기, 金利寄食者, 쿠데타, 經濟參謀本部, 左翼小兒病, 산업예비군, 스티븐主義, 日和見主義, 원시적축적, 人道主義, 사회파시즘 등 민감한 항목들만 골라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해설하는 등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sup>79)</sup> 경제연구회 학생들은 연구회의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友愛會현상논문’과<sup>80)</sup> 졸업논문<sup>81)</sup> 등 학교에

- 75) 여운형 강연 때는 상과 교수 전원이 참석했다. 鈴木은 일제의 식민정책을 문명시해론으로 美化한, 森谷은 ‘물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사의 정체성을 주장한 官學者이다. 함상훈은 해방 후 한민당 宣傳部長을 지낸 極右的 인사이며, 서춘은 경도제대 재학중 이순탁과 함께 김연수의 학비보조를 받았고 유학중 실력양성론을 펴던 인물이다.
- 76) 1932년 1월 30일 상과과회가 백남운 강연에 경비보조(7원)를 결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이순탁 3회). 경찰에 원고를 사전 제출했고 경찰관이 임석한 속에서 진행했음에도 일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예컨대 웅변대회는 일본말로 하라며 중단시켰고, 1936년 12월 12일자 강연회는 외부인을 불러 교외에서 강연하는 것은 “단체적 街頭活動”에 해당하며 원고(홍양명)도 불온하고 또 일본말로 하라며 중지시켰다(이순탁 3회). 홍양명 강연은 제목을 바꿔 학내강연으로 실시했다(표 3).
- 77) 상과과회(1933. 2. 20)의 결의로 실시되었다. 확인된 내역은 洪承國(영어의 발전연혁, 1933. 6), 林炳赫(최근 미국의 화폐정책, 1934. 11), 이순탁(세계경제의 종황관, 1935. 10), 鄭光鉉(조선농지령의 해설, 1936. 2), 박효삼(銀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폐전쟁, 1936. 6), 정인섭(영어의 연구방법, 1936. 11), 정래길(현대국가의 公債경제, 1937. 6) 등이다.
- 78) 3, 4호는 문과 수물과 학생에게도 지면을 공개했고, 대내잡지에서 대외잡지로 전환했다(주 66 참조).
- 79) 3호는 <景氣論批判>(崔成浩), <經濟思想史研究>(卓基淵)과 <研究室에서 본 인플레이션>(김기정), <조선인 經濟沒落에 대한 일고찰>(김영찬) 등 ‘과학적 연구’를 표방한 글과 함께 <백화점과 소매점의 비교>(梁基哲), <Present Day Business Letter>(P. Kenneth. Lim) 등 ‘技術’적인 글도 실었으나, 4호는 <朝鮮史觀 樹立의 제창>(백남운), <일본파시즘 운동의 역사적 전망>(서명호), <현대조선의 재검토>(朴源轍), <恐慌裡의 세계와 蘇聯의 5개년계획 성과>(이병목) (물가폭등과 受難의 근로계급)(안효병), <軍縮會議의 해부>(김교영), <근로계급과 爭議>(김운봉\*), <階級論>(김기정\*) 등 ‘理論’적 주제를 민족주의적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다룬 글로 채워졌다(\*는 사정으로 게재치 못한 글임). 한편 『경제연구』는 4호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1933, 1934년은 한국 근현대 學術史의 발흥기였고, 상과의 학생증가로 經費不足에 따른 ‘紙面難’은 없을 것이라며 5호 원고모집 광고를 냈지만 나오지 않았다. 1933년 6월이래 연천학생회 건설문제가 경제연구회의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미루어진 듯하다.
- 80) 延專의 한국인 교원들로 조직된(1923) 友愛會가 3과 학생들의 논문을 모아 우수논문을 施賞하기로 결의(1932. 3. 14)하면서 시작되었다. 상과에서는 경제연구회를 통해 廣告 募集한 후 논

〈표 5〉 友愛會 현상논문 제목 및 당선자

시 상 일	제 목	이 름	학 년
1933. 3. 7	朝鮮경제의 現단계	具星會	3
1934. 3. 10	인플레이션에 對하여	孫禧軾	2
1935. 5. 9	朝鮮對外貿易現狀論	朴先玉	2
1936. 6. 18	朝鮮工業化의 과정	김창식	2
1937. 2. 18*	唯物史觀에서의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에 관한 고찰	李元九	3
"	亞細亞의 생산양식의 意義	金斗七	3
"	朝鮮電力統制論	金奎三	1
1938. 2. 16	朝鮮現行租稅體系論	李海俊	2

자료: 〈경서고비 3. 29〉, 〈의견서〉. \*는 당선작없이 2등(이원구, 5원)과 3등(김두철·김규삼, 각 3원) 입선만 나왔다(〈이순탁 4회〉).

〈표 6〉 우수졸업논문 제출상황(1회, 1933. 2)

제 목	이 름	심사원	면 제 과 목
産業合理化와 失業문제	趙光燾	이순탁	화폐론, 장고론
資本主義 經濟下의 金利정책	구성희	최순주	화폐론, 상업실천
現下 인플레이션의 本質	玄金甲	최순주	"
關稅와 經濟불력	崔鐵元	노동규	교통론, 통계학, 회계학
朝鮮租稅制度	吳吉萬	노동규	재정론, 통계학
朝鮮小作調整令	徐昌成	백남운	상법, 재정학
小作料의 特質	黃時淵	백남운	재정론, 상업실천

자료: 〈이순탁 3회〉.

서 실시한 논문모집에도 적극 응했다. 〈표 5, 6〉이 내역인데 논문제목에서 보듯이, 상과 교수들과 경제연구회의 학풍을 반영하여, 현실문제를 민족주의 맑스주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 글이 주류를 이루었다.

경제연구회는 1932년 1월 10일에 해산된<sup>81)</sup> 延專學生會 재건에도 나섰다. 학생회

문작성 用語, 論理의 조립, 내용의 充實性, 논문體制, 참고문헌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발표 시상했다. 당선자(1등)는 장려금 10원과 해당 1과목의 3학기 시험면제, 응모자는 1과목 시험면제의 특전을 받았다. 백남운 교수가 심사한 〈표 6〉의 박선옥(朴星在) 논문은 상금 10원, 상업지리(95점) 시험면제, 『연전타임스』(창간호) 발표라는 특전을 받았다. 이 때 응모한 李義範(상 2), 金昌率(상 3)도 상업지리(90점), 상업정책(92점) 시험을 면제받았다.

81) 상과과회(1933. 1. 30)의 결의로 실시했다. 우수논문 제출자에게는 그해 3학기 시험을 면제했다. 내용이 빈약하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 1933년, 1934년 두 번 실시하고 중단했다(〈피고인 이순탁 4회〉, 〈俞德兼〉, 〈이순탁 3회〉).

82) 학생회 해산의 표면적 이유는 학생회 부활(1927. 11) 후에도 “思想團體와 연락, 학생공산주의 운동 단체화며 직원배척, 수업료불납동맹, 맹휴”를 일으켰고, “학생회내에 主義運動에 관한 파벌이 생겨 그 餘震이 학교의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 校紀를 문란시켰다는 것이다(〈京西

해산 후 연전의 學生運動이 분산 위축된데 대한 대응이었다.<sup>83)</sup> 1933년 6월부터 시작된 재건운동은 1935년 4월에 경제연구회 위원장 이동수를 중심으로 3과 연합위원회를 만들고, 이어서 상과의 이동수, 조은상 등 각과 대표 2명으로 學生會再建委員會를 발족하는 등 진전을 보였지만<sup>84)</sup> 여러 이유로 무산되었다.<sup>85)</sup> 결국 경제연구회는 1935년 5월경에 타과생도 가입할 수 있게 회칙을 바꿔(부록) 연구회를 '실질적인 연전학생회'로 만들어가는<sup>86)</sup> 한편, 차선책으로서 3과가 연합하여 『延專타임스』라는 학내신문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연전타임스』는 그해 9월 1일에 3과 연합출판부 이름으로 창간호를 낸 이래<sup>87)</sup> "거교일치 협동의 기치"아래 매호 5백부를 발행하여 재학생, 졸업생에게 배포했지만 경비(1회에 80원)의 절반을 경제연구회가 부담했을만큼 경제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었다.<sup>88)</sup>

1930년대의 연전상과 교수진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그 교육배경과 학문경향이 다양했다. 그러나 1930년대 한국의 사상계, 학술계는 대공황을 전후하여 일제의 관학적 조선연구와 민족개량주의 세력의 친일적 타협적 학문경향이 발호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당시의 학술계는 민족문제, 계급문제를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1930년대 상과의 학풍은 이러한 문제에 학문적으로 민감하게 연

高秘 5. 10)). 아마도 만주사변 후의 긴박한 정세변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1926년 11월의 1차 해산도 표면적 이유는 "학생공산주의 운동에 진출하여 校紀를 문란"시킨 때문이었다((유억겸)).

83) "만주사변을 계기로 思想轉換 機路에 선 同校의 학생좌익운동"이 침체했다는 일제의 보고는 이를 말한 것이었다((京西高秘 5. 10)).

84) <이순탁 2회>, <京西高秘 5. 10>. 이에 앞서 경제연구회는 『경제연구』 3, 4호를 타과생에게 개방하여 실질적인 학생회 기관지로 만들어 가는 한편 1933년 6월 12일에 경제연구회 위원장 李鎬翹를 중심으로 3과연합 '舊學生會清算大會'를 열고 舊학생회의 자진해체와 새로운 학생회 건설을 결의했다.

85) 학교당국이 허용하지 않았고, 3과의 주도권 다툼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학생회 재건은 연전의 가장 큰 과제였다. "거교일치 협동의 정신아래 학생회 재건문제 구체화. 10월 하순에 최후결정. 大延禱 건설의 제1단계" 운운한 기사(『연전졸업앨범』 1936)와 『연전타임스』 <창간사> 참조.

86) 정해돈은 회칙개정 시점을 "1935년 5월경"이었다고 진술했다((丁海敦 3회 10. 31)). 그러나 이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조은상 3회)).

87) <李元九 2회>, <崔炳準 1회 10. 18>. 1936년도 경제연구회 출판부원의 업무분담은 경제부 최병준, 이원구, 운동부 이대균, 회계부 박선옥(收支經理), 광고부 이경희, 배급부 金衍植이었다((朴先玉 2회 10. 18)). 3과 연합출판부의 내부조직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연전타임스』는 1935년에 4호까지, 1936년에는 5호(5. 1), 6호(6. 25), 7호(7. 25), 8호(10. 25)를 간행하고 발간이 중단되었다((의견서), <丁海敦 3회>).

88) 조은상은 이를 경제연구회의 기관지였다고 진술했다((조은상 2회 9. 15)). 수입증 광고비가 20, 30원을 차지했다((朴先玉 2회)). 창간호에는 부교장 유억겸, 3과과장(이춘호, 이순탁, 백낙준) 외에 유일하게 1934년도 상과졸업생 徐康百이 축사를 썼다. 경제연구회 출판부장으로 『경제연구』 3, 4호 발간을 총괄한 인물인 점에서 『연전타임스』 발간시 경제연구회가 차지한 주도적 위치를 보여 준다 하겠다. 『연전타임스』에는 백남운의 <역사의 조선과 조선의 역사> (1935. 11. 1), 노동규의 <원시사회의 발전개관>(6호), 박선옥의 <조선대의무역현상론(1)>(창간호), <신학기를 맞은 신촌의 풍경>, <스타하노프운동>(이상 5호) 등 상과 교수와 학생의 글이 실렸다.

결될 수밖에 없던 경제학 교수들의 反日 反資本主義的 학문경향에 따라 형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풍도, 그 학문의 수준이나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좀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던 경제학자들의 학풍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상과의 경제학풍이 교수, 학생없이 반일·반자본주의의 경향을 띤 이유였다.<sup>89)</sup>

그렇지만 1930년대의 학계 상황은 1936년 말과 1937년 초를 경계로 일제의 사상 탄압이 극대화하는 속에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일보도 벗어나지 않는” 학술활동조차 곤란한 지경이었다. 1936년의 2·26사건, 8월의 ‘조선불온문서취체령’ 공포와 南次郎 총독 취임, 11월의 日獨防共협정, 12월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공포와 경성 준비 그룹의 李載裕 체포사건 등 일제의 사상탄압이 더욱 격렬해지는 속에서, 상과 교수 전원이 참가하여 주도했던 朝鮮經濟學會는 해산되고, 학생들의 經濟研究會도 일제의 학술활동을 중단한 休止상태로 들어갔다.<sup>90)</sup> 물론 1937년 11월에 간행된 백남운의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개조사)로 대표되듯 내면에서는 이러한 반일·반자본주의적 경제학풍과 학문관이 깊이를 더해갔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1937년 초부터 休止期로 들어섰다. 일제가 연전상과를 지목하고 이른바 經濟研究會事件=‘赤色教授그룹’사건을 일으켜 상과의 이러한 학풍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것은 상과의 학술활동이 休止상태로 들어선지 1년이나 지난 1938년 2월이었다.

### III. 1938년 ‘經濟研究會事件’과 그 영향

#### 1. ‘事件’의 발단과 귀결

##### 1) 발단과 경과

1938년 2월 23일 오후 4시 서대문경찰서장은 경기도 경찰부장에게 延壽의 學內組織에 관해 전화로 긴급 보고했다. 수 년 전부터 연전학생회 後身으로 상과학생 중심의 經濟研究會가 조직되어 당국의 허가없이 극비리에 학생응원대회를 열고 여론형 등 ‘主義者’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열어온 것으로 판명되어, 책임자 李墉(28세,

89) 주지하듯 이순탁, 백남운은 계급주의 국채주의에 집착한 편협한 맑시스트가 아니었다. 이순탁은 朝鮮語辭典편찬회(면찬위원), 朝鮮音聲學會(회원)에도 참여 활동했고, 백남운도 民族問題를 누구보다 중요시했던 학자였다(방기중, 1992, 이준식 1993). 이들이 연전문과·수물과의 민족주의 계열의 학자들과 友情을 나눈 일은 유명하다. 특히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 서문에서 鄭寅普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했고, 정인보는 이순탁의 『최근세계일주기』에 서문을 써주었다. 『연전졸업앨범』(1936)의 백남운, 정인보 두 교수의 담소장면은 이들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민족문제를 중시한 두 교수의 입장은 해방정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90) 조선경제학회는 “1937년 초경에 해체했다”는 임병혁의 진술로 보아(임병혁) 1937년 초에 해산한 듯하다. 경제연구회의 연구발표회, 강연회, 『연전타임스』 발간도 1936년 말, 1937년 초에 모두 중단되었다(〈표 2, 3, 4〉와 주 87 참조).



1933, 37, 無職)을 연행 조사중이라는 보고였다.<sup>91)</sup> 그후 이용을 집중 조사한 경찰은 그가 '民族共產主義' 사상을 소지한 인물이며,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연전의 抗日的 맑스주의적 교육방침에서 영향받은 때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3월 29일에는 경기도 경찰부장과 경성지법 檢事長에게 그간의 수사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民族共產主義의 색채가 농후"한 연전학생들의 행동에는 필경 학교당국자들의 默認 助成 혐의가 있다. 특히 백남운, 노동규 교수는 학생들에게 혁명意識을 주입한 혐의가 뚜렷하여 가택을 수색한 결과 붙은서적이 나와 이를 압수하고 思想運動 용의자로서 구속 조사중이라는 보고였다.<sup>92)</sup> 이 보고를 전후하여 경찰은 이용과 같은 해 졸업생인 趙殷相(25세, 1934~1937, 영국인 醫士의 傭人)과 백남운, 노동규, 이순탁을 연행했다.<sup>93)</sup> 그리고 그간의 수사속보를 5월 10일에 경기도경과 경성지법 檢事長에게 재차 보고했다.<sup>94)</sup>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은 經濟研究會를 좌익학생단체인 연전학생회의 실질적 再建體로서, 副校長 유억겸 이하 '左翼教授그룹'의 지도아래 좌익학생들이 운영해온 학생공산주의 운동단체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경제연구회는 1935년 4월이래 맑스주의의 '實踐'을 회칙(목적)에 삼입하고, 문과·수물과 학생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여 그간 각종 연구발표회(독서회), 강연회를 열어왔으며 이는 공산주의 혁명지도자를 양성하고 대중에게 민족혁명의식을 주입하여 객관적 정세가 성숙할 때 이들을 동원, 폭력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찰은 학생들의 이러한 思想惡化 배경에는 유억겸 등 '左翼교수그룹'이 관련되어 있다는 확증이 있으므로 "積年에 걸친 同校의 排日共產主義 思想의 牙城"을 근본적으로 壞滅시키려면 1935년도 이후의 경제연구회 간부와 유억겸 등을 모두 검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수사가 연전의 '赤色教授그룹'등 학교당국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91) <1938. 2. 23. 오후 4시 경성서대문경찰서장. 경기도경부장殿. 연회전문학교의 학내조직에 관한 전>. 수사가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김규삼은 1937년 10월 17일 밤 12시에 임종배, 김창식, 김규삼 등을 연행하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김규삼, 1965. <경영학 도입의 선구>『연세춘추』 6. 7), 이순탁이 南총독 부임이래 內鮮一體를 위한 學制개혁, 지원병제 실시, 左翼取締 강화에 위협을 느껴 10월 하순에 현상논문과 좌익서적을 태웠다고 진술한((이순탁 2회 6. 13)) 짐을 보면 이 회고가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1월 30일에 상과과회가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했고, 12월 9일에 실제 축하회를 연 것(주 46)을 보면, 설사 그랬다 해도 아직은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92) <京西高秘 3. 29>. 이용은 함흥출생으로 인천공립 普校, 경성제2고보를 졸업했다. 고보시절(1931. 9) 그의 從妹 집에 "共產大學 졸업 후 入鮮활동중이던" 金大鳳을 6일 동안 "止宿 潛伏" 시켜 경찰에서 조사받았던 抗日的의식의 소유자였다. 北京志成中學 高中部 2학년에 입학(1932. 5)했으나 만주사변 후의 격렬한 항일운동으로 학업이 곤란해 귀국(1933. 2), 그해에 연전상과에 입학, 경제연구회 연구부장 등으로 활약했고 1937년 3월 졸업했다(<이용 1회 5. 7>).

93) 백남운은 3월 29일 오후 2시, 노동규는 3월 30일 오후 1시, 이순탁은 4월 12일 오후에 각각 延專에서 연행당했다(<치안유지법위반 피의자동행보고>).

94) <京西高秘 5. 10>.

일제가 1938년 2월이라는 시점에서 經濟研究會에 ‘학생공산주의단체’라는, 상과의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 교수에게는 ‘赤色教授그룹’이라는 낙인을 찍어 새삼 검거한 데에는 그럴만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주지하듯 일제는 코민테른 7차 대회(1935. 7)의 反파쇼 人民戰線戰略을 염두에 두면서 맑스주의자, 社民主義者, 자유주의자 등 일체의 反파쇼, 反軍, 反戰세력을 탄압하였다. 1936년의 2·26사건, 日獨防共協定(11월), 1937년의 중일전쟁(7월), 日獨伊방공협정(11월)을 거치면서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1937년 12월에는 침략전쟁을 비판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矢內原忠雄 교수를 동경제대에서 축출했고, 人民戰線을 만들려 했다는 구실로 일본자본주의 논쟁에서 勞農派에 속했던 학자들을 대거 구속했다(제1차 인민전선사건). 1938년 2월 1일에는 동경제대 경제학부의 大內兵衛, 有澤廣巳, 脇村義太郎, 동북제대의 宇野弘藏, 법정대학의 美濃部亮吉, 南僅二, 阿部勇 등 다양한 입장에서 세계경제동향을 연구해온 새칭 세계경제비판회 소속 교수들을 이른바 ‘教授그룹事件’이라는 이름아래 구속했다(제2차 인민전선사건). 심지어 어용학자로서 맑스주의 비판에 앞장섰던 동경제대 河合榮治郎 교수도 2·26사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했다. 대대적인 사상탄압, 대학탄압을 전개했던 것이다.<sup>95)</sup>

1938년 2월부터 시작된 연전상과의 經濟研究會 = ‘赤色教授그룹’ 사건은 한국에서의 反파쇼 人民戰線 노선의 부상을 우려한 일제가, 일본에서 인민전선사건을 일으켜 교수들을 탄압했던 똑같은 논리로써 한국학계와 교수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상탄압 사건이었다.<sup>96)</sup> 일제가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을 人民戰線的 사건으로 몰아가려 했음은 여러 면에서 확인된다. 우선 경찰은 1935년 4월이래 상과의 左翼教授가 공산주의를 강의하고, 학생들이 연구발표회(讀書會)와 민족주의자, 공산혁명지도자, 左翼학자, 自由主義者의 강연회를 여는 등 공산주의적 ‘實踐’운동에 나섰던 결정적 계기를 스페인의 人民戰線 활동, 西安사건 이후의 중국 인민전선활동(國共合作), 일본과 소련 기타 자본주의 열강간의 국제적 대립에서 찾았다. 이 때를 “피압박 조선민족이 혁명전선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學園自由의 그늘에서 “在來의 表現團體”로 위장한 채 平和的 合法的 수단을 빌어 공산주의 활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하나하나로서는 “不穩 過激에 極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를 종합하면 “人民戰線戰術을 방불”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95) 이 시기 일본에서의 대학탄압 사건에 대해서는 崔虎鎮(1991) pp. 423~424, 강동진, 1985. 『일본근대사』 한길사, pp. 396~397, 大內兵衛, 1959. 『經濟學五十年』 동경대학출판회, pp. 247~256, 廣川禎秀, 1985. <파시즘기의 저항운동과 민중의식>『각과 日本歷史 10』 동경대학출판회, pp. 231~236 참조. 1차 인민전선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은 大森義太郎, 山川均, 向坂逸郎, 猪俣津南雄 등 446명이었다. 자유주의를 탄압한 이유는 이것이 공산주의의 온상이라고 본 때문이었다. 어떤 평론가는 河合의 추방을 兎死狗烹이라고 불렀다.

96) 1937년 6월과 1938년 2월에 각각 시작된 동우회 사건과 흥업구락부 사건, 그리고 1942년 10월부터 시작된 朝鮮語學會 사건 등도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지식인 탄압, 학계탄압 사건이다.

한다는 것이었다.<sup>97)</sup> 경찰의 이런 의도는 이순탁의 범죄사실을 기록한 다음에서도 확인된다.

(經濟研究會의) 각종 집회는 전적으로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오로지 사회 과학에 관한 이론 및 그 실천운동이며, 더욱이 外部 연사는 모두 농후한 民族 共產主義者, 左翼學者 등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 결정한 소위 人民戰線戰術에 의거 組織의 확대 강화를 목적으로 이를 관찰 警察署長의 허가도 없이(대의강연회는 제외) 독단적 의식적으로 허가하고 스스로 批判指導를 맡았으며, 상과교사들을 집회에 1명 이상 파견하여 학생공산주의운동을 지도케 함으로써 同그룹(상업연구실적색교수그룹)의 목적수행을 위해 노력했다.<sup>98)</sup>

경찰수사는 1938년 2월부터 12월 15일까지 10개월이나 끌었다. 이 동안 경찰은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 외에 부교장 유억겸(43세)과 홍승국(50세), 최순주(39세), 임병혁(37세), 鄭寅燮(34세), 박효삼(37세), 정래길(44세), 정광현(37세) 등 상과의 전임 교수 전원을 연행했다.<sup>99)</sup> 졸업생 재학생도 검거했다. 1937년도에 졸업한 朴先玉(27세, 1934~1937, 조선운송주식회사원), 崔炳準(26세, 1934~1937, 조선일보사원)과 1938년도 졸업생인 金昌植(25세, 1935~1938, 조선상업은행원), 丁海敦(23세, 1935~1938, 조선총독부철도국원), 李義洙(23세, 1935~1938, 조선식산은행원), 金鍾河(23세, 1935~1938, 광화문금융조합서기), 李元九(26세, 1933~1937, 대륙고무공업주식회사원), 林鍾培와 김규삼(상 2) 등 재학생을 포함하여 60여 명을 체포했다.<sup>100)</sup>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벌였다. 1938년 5월을 전후하여 교수 학생의 가택(〈표 7〉)은 물론 延專의 부교장실, 서무실, 상과과장실, 상업연구실, 문과연구실, 도서관까지 수색했다(〈표 8〉). 그리하여 교수들의 강의안, 각종 원고, 학교에 보관중이던 시험답안지, 학생단체의 임원명부, 동문회원록, 우애회록, 현상논문 입상자명부, 商科科會錄, 商科敎職員名簿, 경제연구회 집행위원會錄, 經濟研究會錄, 경제연구회규칙(회칙)을 압수했다.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필기한 공책, 메모지, 수첩과 사진, 일기장도 압수했다. '불온서적'을 포함하여 총 2,212종이나 되었다.<sup>101)</sup> 한국학술사에서 전

97) 〈京西高秘 5. 10〉.

98) 〈의견서〉.

99) 이들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은 俞億兼 11월 2일, 朴孝參 11월 30일, 林炳赫 鄭寅燮 12월 2일, 洪承國 12월 3일, 崔淳周, 丁來吉 12월 12일, 鄭光鉉 6월 18일, 9월 12일이다.

100) 경제연구회 임원출신들이다(〈표 1〉). 경찰은 조은상 4회, 최명준 3회, 정해돈 3회, 이원구 5회, 朴先玉 2회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연행된 60여 명은 서대문경찰서가 파악서 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었고, 임종배는 수사중 사망했다(김규삼, 1966; 1977. 〈3교수 사건의 주역 이순탁〉 『연세춘추』 2. 28).

101) 압수품 〈목록〉만도 1책이다. 교수들이 신문, 잡지에 쓴 글도 신문사, 도서관에서 압수했다. 이것까지 합하면 2,222점이다.

〈표 7〉 家宅 수색·압수 내역

대 상	월 일	시 간	압 수 품 목
白南雲	5. 14	9:00~ 9:30	강의안(상업사, 상품학), 원고(조선사회경제사)
	5. 16	9:00~11:30	원고(조선사회경제사), 불온서적 695종
李順鐸	5. 16	13:00~13:30	동문회원록, 불온서적 423종
盧東奎	5. 16	13:00~14:30	강의안(농업경제, 은행론, 상업정책, 화폐론, 상업지리), 원고(산업합리화에 대하여), 불온서적 324종
鄭光鉉	5. 16	16:00~17:30	불온서적 25종
丁來吉	5. 19	16:00~17:00	원고(現代國家의 公債經濟)
李 墉	4. 19	13:00~14:00	노트(경제원론, 상업통론, 경제사, 법제, 상법, 세계경제지리, 은행론, 농업경제, 상법, 화폐론), 경제연구회연구部錄, 수첩, 原稿(최근 만주이주의 조선영세농민, 유물사관에 대하여), 편지(金玉振, 金東錫)
丁海敦	5. 18	10:30~11:30	불온서적 9종
金昌植	5. 18	14:00~15:20	日記帳, 불온서적 64종
李義洙	5. 17	9:00~10:20	노트(지나농업경제, 경제)
趙殷相	5. 17	10:00~12:20	사진 1매, 불온서적 6종
李元九	5. 17	9:00~ 9:50	備忘錄, 原稿(유물사관에서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에 관한 고찰), 불온서적 18종
朴先玉	5. 17	10:30~11:40	노트(철학, 상업통론, 경제학, 경제원론, 상업정책), 原稿(스타하노프운동), 불온서적 7종
崔炳準	5. 17	13:00~ 2:30	노트(상업통론, 농업경제, 상업정책), 사진 2매(6人寫 1매 포함)

자료: 〈수색조서, 차압목록〉.

〈표 8〉 延事 수색·압수 내역

장 소	월 일	시 간	압 수 품 목
副校長室	5. 16	9:00~ 9:30	우애회 논문입상자 명부
庶務室	5. 16	9:00~ 9:30	시험답안지(화폐론, 경제원론, 시장론, 상업통론, 경제사, 상업사, 동양경제사)
	5. 16	9:00~11:00	시험답안지(농업경제, 은행론, 상업정책, 화폐론, 재정학, 교통론, 법제, 경제학), 우애회회록, 학생단체 각부서 및 임원명부
商科科長室	5. 16	9:30~11:30	강의용프린트(분배론), 카드(맑스주의 경제학의 기초이론), 경제연구회록, 경제연구회집행원회록, 경제연구회록, 경제연구회규칙 및 회칙, 상과과회록, 강연록(여운형, 중국의 정치정세), 불온서적 2종
	5. 19	1:00~ 2:00	불온서적 46종
商科研究室	5. 16	9:00~11:00	상과 교직원 명부, 불온서적 11종
	5. 19	1:00~ 2:10	불온서적 42종
文科研究室	5. 16	1:00~ 2:30	原稿(조선과 서양 각국의 交通史, 최근세 학예부흥운동사)
	5. 19	1:00~ 2:30	불온서적 22종
圖書館	5. 19	1:00~ 4:00	불온서적 546종

자료: 〈수색조서, 차압목록〉.

무후무한 대탄압으로서 이 시기 일제가 연전상과의 反日 反官學的 경제학풍을 탄압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경찰은 연행자들의 思想性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에 대해서는 본인, 동료교수, 제자들의 自白과 강의록, 필기공책, 답안지 등 각종 증거물품을 토대로 成長 修學 思想형성 과정과 延專부임 경위, 부임 후의 모든 학내외 활동을 철저히 수사했다.<sup>102)</sup> 학외에서의 사상단체 사회단체 가입경위, 발표한 글의 내용과 집필동기, 강연회 참석 경위와 강연내용은 물론 학내활동도 조사했다. 담당과목, 강의진행방식, 강의내용, 강의목차, 교과서와 참고문헌 및 저자의 사상경향, 시험문제, 채점방법, 논문심사방식 등 교수 교유의 영역과 科會의 구성원, 개최일시, 주도인물, 분위기, 담당과목 배정 및 강사선정 방법, 상업연구실 설치경위 등 商科의 통상적인 업무까지 수사했다. 경제연구회 활동에 대한 허가 지도사항과 경위, 공사석에서의 대화, 도서관 상업연구실에 도서를 기증한 동기와 내역, 심지어 교수들의 別名도 조사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제연구회의 실체와 활동, 연구회에서의 역할, 교수들의 意識化 교육내용에 수사를 집중했다.

1938년 12월 15일로 수사를 일단락진 경찰은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를 有罪(치안유지법위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명은 기소유예 의견으로서 류만 送局했다.<sup>103)</sup> 그리하여 세 교수는 검사(長崎)의 간단한 신문을 받은 후 그날 오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sup>104)</sup> 경찰이 파악한 세 교수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았다.<sup>105)</sup>

먼저 경찰은 이들 세 교수가 맑스주의자가 된 동기를 유학시절 河上鑒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특히 이순탁은 유학시절부터 조선이 일제강점에서 벗어날 길은 공산주의적 민족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연전부임(1923. 4) 직후부터 코민테른 3차대회(1921. 7)에서 채택한 '大衆 속으로' '政治鬭爭으로'라는 新戰術에 따라 한편으로는 延專을 적화하여 前衛的 지도자를 양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을 계몽하여 민족혁명을 위한 反帝單一戰線을 결성하려 해왔다고 보았다. 이런 이순탁은 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진영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조직화할 목적 아래 자신과 主義를 같이 하는 백남운, 노동규를 끌어들이어 "同志로서 親

102) 경찰은 이순탁, 노동규 6회, 백남운 7회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정광현 전임강사와 졸업생 이용도 각각 2회, 4회 작성했다. 주 99, 100 참조.

103) <제734호 사건송치서. 서대문경찰서장. 경성지법 검사국 殿> 1938. 12. 15, 『조선일보』 1938. 12. 17. 12월 초에 경찰이 작성한 <彙行調查書>도 세 교수를 각각 "좌익분자들에게 신용이 능후"한, "프로學者로서 불은과격한 언동을 弄하기" 쉬운, "極위험시되는 과격한" 민족공산주의 사상의 포지자들로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개전의 정이 없는"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104) 세 교수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1938. 12. 5. 검사국의 구류집행은 오후 4시 20분, 서대문형무소의 신병인수는 5시 20분이었다(<旬留狀> 1938. 12. 15).

105) <의견서>. 별도의 주가 없는 한 이하 동일하다.

앓을 맺어"왔고, 1929년 10월 초에는 商科科會의 결의로 상업연구실을 만드는 한편 이 기회에 민족공산주의 혁명의 '一階梯'로서, 백남운, 노동규와 함께 延壽赤化의 最高指導部인 '商業研究室赤化教授그룹'이라는 結社를 조직했다는 것이 경찰의 견해였다. 요컨대 이들 3인은 이순탁을 最高指導者로, 노동규를 상업연구실 主任으로 "陣容을 정비"한 이래 일제타도와 소비에트건설을 위한 학내의 적화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왔다는 것이었다.<sup>106)</sup> <의견서>가 지적한 구체적인 적화활동은 상과의 '理論과목'을 독점하여(<표 10>) 그 과목의 강의구성, 교과서의 참고서 지정,<sup>107)</sup> 시험과 논문 출제<sup>108)</sup> 등을 통해서, 또 경제연구회의 학술활동 지도, 科外강연, 商業研究室 운영과 도서관 도서기증<sup>109)</sup>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學內적화 사업을 벌였고, 사회단체 활동이나<sup>110)</sup> 강연(<표 9>), 집필<sup>111)</sup> 등을 통해 學外적화 사업도 벌였다는 것

106) 주 12, 53에서 본대로 이순탁은 세 교수 중에서도 가장 맑스주의적 색채가 弱한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적인 인물이었다고 경찰에도 가장 늦게 연행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赤化教授그룹'의 最高指導者로 내세웠다. 組織사건으로 몰아가며 그를 首腦로 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 3인이 商科科會를 장악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업연구실 설치 등 학내 적화활동은 비록 과회의 이름을 빌어 실행했지만 사실은 3인이 협의한 후 과회의 추인만 받았다고 여겼다(<의견서>).

107) <의견서>가 지적한 교과서(\*)와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았다. ① 이순탁: 경제원론-『맑스주의 경제학의 기초이론』, 『經濟學大綱』, 『유물사관연구』(이상 河上肇), 『資本論』, 『정치경제학비판』(이상 맑스), 『國富論』, 『人口論』, 『자본축적론』(로자록셈부르크), 『경제사상사론』(八木善次) 등. ② 백남운: 경제원론-『경제학입문』(로자록셈부르크), 『맑스주의 경제학의 기초이론』, 『경제학대강』, 『貨幣國定の 學說』(크나프), 상업사-『세계경제사개론』(슈미트), 『조선사회경제사』(백남운), 『변증법적유물론입문』(탈하이마), 동양경제사-『조선사회경제사』(백남운), 『토탈과 타부』(프로이드), 『세계경제사개론』, 『변증법적유물론입문』. ③ 노동규: 농업경제론-『농업경제론』(近藤康男), 『맑스주의 농업문제총론』(웬슈담), 『농업경제학』(카우츠키), 은행론-『신용과 신용조직』(카스로프), 재정학-『財政學大綱』(大內兵衛), 화폐론-『金の經濟學』(猪俣津南雄), 『화폐인플레이션이론』(猪俣津南雄), 『화폐와 신용』, 『가치와 화폐』(라피트라스).

108) 체점과 논문심사도 내용의 충실성보다 민족공산주의 혁명의식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았다. 이순탁이 경제원론 시험문제로 '無產者'라는 용어해설을 출제한 이유, 백남운이 '商業의 역사적 중요성을 논술하라'는 商業史 시험에서 日帝를 비방 공격한 내용을 적은 유흥남의 답안에 100점을 준 이유, 민족의식을 과격하게 표현한 박선욱 논문을 우애회 현상논문(<표 6>) 당선작으로 뽑은 이유 등을 추궁했다.

109) 기중도서는 백남운: 『식민지프롤레타리아강좌』, 『新노동당 제창의 반동성』, 『러시아혁명당사』, 『大戦前無체비키』, 『혁명당일지』,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노동규: 『맑스주의강좌』, 『제국주의하의 조선의 교육상태』, 『사회경제노동자평론』, 『지나혁명민족문제』, 『정치의 기초지식』, 『레닌주의의 기초』(스탈린), 『10월혁명에의 길』(이하 부하린), 『전환기의 경제학』, 『유물사관』 등이었다.

110) 경찰이 파악한 세 교수의 사상단체, 사회단체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물산장려회, 民友會, 靑邱會, 湖南同友會(이상 李), 啓明俱樂部(백), 조선사정연구회, YMCA(이상 李, 白), 신간회, 연전우애회, 조선경제학회(이상 이, 백, 노). 경찰은 조선경제학회는 공산주의 단체로, 기타는 민족주의 단체로 분류했다.

111) 세 교수의 집필활동은 임영태(1985), 방기중(1992), 홍성찬(1994) 참조. 경찰이 특히 문제삼은 글은 이순탁: <세계일주기행>, <NRA의 苦惱相>, <세계적유쟁鬪戰>. 백남운: <사회학의 성립 유래와 임무>, <뉴델의 전망>, <인정식著 조선농업기구의 분석에 대한 후속감(동경제대 대학

〈표 9〉 세 교수의 강연회 참석 내역(1929. 10 이후)

연 사	일 시	연 계	장 소	주 최	청강자
이순탁	1934. 5	나치스독일見聞談	YMCA	경제연구회	4백명
	1934. 6	이태리觀察談	"	보진학생회	3백명
	1935. 8	今後의 世界景氣	지방순회*	동아일보사	수백명
	1935. 11	"	경성공회당	신동아사	"
백남운	1933. 3	조선사관수립의 제창	YMCA	경제연구회	4백명
	1934. 4	조선경제사의 방법론	경성공회당	신동아사	4백명
노동규	1932. 8	산업합리화에 대하여	조양청년회관	조양청년회**	4백명
	1933. 2	"	YMCA	경성상공협회	4백명
	1933. 3	세계공황에 대하여	고려청년회관	고려청년회***	4백명
	1933. 8	조선농촌경제문제	인천普校	동아일보사	150명
	1933. 11	조선쌀은 어디로	경성공회당	"	4백명
	1935. 10	경제의 各鍾相	경성제2방송	경성방송국	방송

자료: 〈의견서〉. \* 해주, 평양, 진남포에서 열림. \*\* 大邱소재. \*\*\* 開城소재.

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治安維持法 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었다.<sup>112)</sup>

## 2) 歸 結

1938년 12월 26일 검찰은 세 교수를 기소, 예심에 회부하고,<sup>113)</sup> 정광현, 이용은 기소유예,<sup>114)</sup> 나머지 12명은 무혐의 처리했다.<sup>115)</sup> 경제연구회는 학생공산주의 단체가 아니며, 상과과회도 적화교육방침을 협의한 기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예심청구서에서 밝힌 세 교수의 범죄요지는 강의 집필 강연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 했다는 것이었다.<sup>116)</sup>

신문), 〈조선경제의 현단계〉, 〈역사의 조선과 조선의 역사〉. 노동규: 〈조선농가경제실상조사 해부〉, 〈조선사회경제사연구론집을 讀함〉, 〈인푸레쉬의 본질及 비판〉,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대하여〉, 〈조선경제와 통제문제〉 등이었다.

112) 경찰수사는 사실상 12월 7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에 세 교수는 차안유지법 위반피의자로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정식 유치되었다(〈留置狀〉).

113) 〈예심청구서〉 1938. 12. 26. 12월 27일에는 '타인과의 接見 및 書類의 授受'도 금지시켰다(〈1938년 예제53호 결정〉).

114) 『조선일보』 1938. 12. 27, 〈불기소사건기록 1938년 형 제6284호. 경성지법검사국〉 1938. 12. 26. 둘 다 유죄는 인정되나 意識수준이 낮고, 前非를 뉘우치며 轉向을 서약하는 등 改悔의 情이 뚜렷하여 기소유예했다. 특히 정광현은 敎職에서도 사퇴(1938. 11. 22)했으므로 不起訴했다.

115) 교수들은 공산주의를 배척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상과과회에서 적화교육방침을 협의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졸업생들도 경제연구회란 상과생은 누구나 가입했던 단체로서 공산 단체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둘 다 이를 반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116) 〈예심청구서〉 1938. 12. 26.

1938년 말에 예심에 회부된 세 교수는 구류기간을 수차 연장하며<sup>117)</sup> 서대문형무소에서 囹圄의 기간을 보냈다. 수감이 장기화되자 교수들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백남운은 지병인 빈혈증이 악화되어 가끔 졸도증세를 보였고, 노동규도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sup>118)</sup> 결국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는 등<sup>119)</sup> 생존을 위한 여러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8년 3월 연전교정에서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지 15개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지 6개월이 된 1939년 5월 30일 백남운은 예심판사에게 〈感想錄〉을 제출했다. 맑스경제학에 심취한 과정을 진술하고 사회에 복귀하면 更生의 길을 건졌으며 가능하다면 ‘統制經濟研究所’ 같은 기관을 창설하여 학문적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향서였다.<sup>120)</sup> 이순탁도 6월 23일에 〈思想轉向錄〉을 제출했다. 일시나마 반국가적인 민족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했던 과정을 진술하고 향후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내선일체와 동양평화 확립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요지였다.<sup>121)</sup> 노동규도 7월 28일에 같은 내용의 〈감상록〉을 제출했다.<sup>122)</sup>

예심판사의 신문은 1940년 4월에 시작되었다.<sup>123)</sup>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sup>124)</sup> 세 교수는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調書를 대거 부인했다. 어떤 경우는 “學的 良心上 절대 그런 적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sup>125)</sup> 예심판사 신문에서 이들이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부인한데는, 경찰의 강압수사는 차치하고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10개월간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세 교수가 당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엄청났다. 戰時下의 살벌한 공안정국하인데다 치안유지법 위반죄를 뒤집어 썼고, 자신들

117)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1939년 3월 14일부터 1940년 5월 14일까지 2개월마다 한 번씩 8회에 걸쳐 구류를 갱신했다.

118) 〈백남운 보석허가신청서〉 1940. 1. 15. 노동규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한양학인, 1931) 결국 출감 후 곧 사망했다(김규삼, 1977).

119) 노동규, 백남운은 盧鐵高, 任哲鎬를 각각 변호사로 선임했다(〈노동규 辯護屆〉 1939. 10. 6. 〈백남운 변호인 선임계〉 1939. 12. 23).

120) 〈감상록〉 1939. 5. 30. 그는 〈보석허가신청서〉(1940. 1. 15)를 제출하고 〈年頭所感〉(1940. 1. 16)이라는 전향록을 재차 제출하기도 했다.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다(〈보석불허결정서〉 1940. 1. 29).

121) 〈사상전향록〉 1939. 6. 23. 이를 쓰게 된 경위는 주 128 참조.

122) 〈감상록〉 1939. 7. 28. 노동규는 朝鮮軍司令部愛國部로 세 번에 걸쳐 국방헌금을 내기도 했다(〈西刑發 제5735호 피고인 헌금(10원)에 관한 건〉 1939. 10. 13. 〈서형발 제244호 피고인 헌금(10원)에 관한 건〉 1940. 1. 15. 〈서형발 제786호 피고인 헌금(15원)에 관한 건〉 1940. 2. 16. 헌금일은 1939. 10. 3, 1940. 1. 6, 2. 12).

123)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문조서〉는 이순탁 5회(4. 22, 4. 23, 4. 26, 5. 1, 7. 13), 백남운 8회(5. 2, 5. 5, 5. 6, 5. 8, 6. 6, 6. 11, 7. 4, 7. 8), 노동규 5회(5. 2, 6. 14, 6. 18, 7. 4, 7. 13) 작성되었다.

124) 백남운(3. 29), 이순탁, 노동규(5. 23) 모두 金用茂를 변호인으로 선정했다(〈변호인選定屆〉).

125) “내 의사에 전적으로 反한”, “경찰관 지시대로 쓴”, “경찰관에게 들은 대로 쓴”, “취조관이 그렇게 인정하라고 추궁하여 어쩔 수 없이 묵인한”, “경찰관이 쓰는 대로 그냥 묵인한” 것이라며 부정했다.



로 인해 학교에 검거 압수 수색선봉이 불고, 부교장과 동료교수들이 줄줄이 잡혀와 모진 조사를 당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心身을 괴롭힌 일은 이미 졸업하여 취직해 있던 제자들이 잡혀와 모진 고문을 받고, 그 중 林鍾培가 숨진 일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5월 말, 6월 초에 몇 차례 조사한 후로는 5~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sup>126)</sup> 교수들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특히 이순탁은 스승으로서, 학교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심했다. 그가 예심판사에게 했던 진술은 아래와 같다.

나는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고초당하는 졸업생들의 迷惑을 벗겨주려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시적이거나 非國家的 사상을 포지했던 게 사실이므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결심, 10월 18일부터 首藤 警部에게 면회를 청했다. 그리고 ① 과거에 非國家的 思想을 포지한 바 있으나 이제는 轉向한다고 聲明하겠다. ② 가능한 한 경찰취조에 협력하겠다. ③ 학교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나를 조속히 취조하고 졸업생은 관대히 처분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니)……경찰에서의 진술은 내 意思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또 경찰은 여기서 공술한 것을 검사 앞에서 절대 부인하지 말라고 하여 검찰에서도 그렇게 했다. 취조가 끝나자 취조관은 ① 모든 取締가 끝났으니 地位도 가족도 집착말라. ② 당신들 행동에는 합법적인 면도 있고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 執行猶豫의 恩典을 받을 것이다. 體刑을 받더라도 근신하라. ③ 同友會 사건 때도 처음부터 인정한 자는 전부 나갔다. ④ 당신 不在時의 가족은 金季洙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11월 22일 정광원 교수와 졸업생은 석방되고 우리 셋만 남았다. 어쨌든 나는 졸업생 석방에 만공의 사의를 갖고 11월 24일 首藤 警部가 나를 불렀을 때 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sup>127)</sup>

그는 조사조차 없이 무작정 감혀 있어야 했던 절박한 상황 아래서, 제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경찰과 검찰의 지시대로 진술해 주었던 것이다.<sup>128)</sup>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에는 이런 사정이 개재되어 있었기에 이들은 경찰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당부분 부인했다. 우선 세 교수는 강의시간에 공산주의 혁명을 선

126) <피고인 이순탁 4회>. 이순탁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1~3회(6. 11~16) 작성 후 5개월이 지나서야 4~6회(11. 24~12. 9)를 작성했다. 백남운도 1~5회(5. 25~6. 2) 작성 후 6개월 만에 6~7회(12. 7~10)를, 노동규도 1~4회(6. 4~10) 작성 후 6개월 만에 5~6회(12. 7~10)를 작성했다. 피의자를 이처럼 기억없이 가두어 두는 것은 '심리적 고문'으로서 일제가 轉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용한 방법이었다(리차드 미첼, 1982. 『일제의 사상통제』 일지사, p. 125).

127) <피고인 이순탁 4회>.

128) 이순탁은 자신이 제출한 <사상전향록>의 冒頭에 “민족공산주의자로서 反국가적 사상을 포회하고, 非국민적 태도를 표시해 왔으며 연전 부인 후 강의 강연 논술을 통해 일반민중에게 惡思想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해 왔다”고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록을 쓸 당시의 심정은 경찰이나 검사국에서의 태도와 마찬가지로”여서 그렇게 썼다고 진술했다(<피고인 이순탁 4회>).

동했다는 검찰기소를 부인했다. 이순탁은 자신의 경제원론 강의안은 맑시즘에 비판적인 『經濟學要義』(河田嗣郎) 『經濟原論』(田島錦治) 등 '正常學派'의 학설을 토대로 河上肇의 경도제대 강의록과 기타 여러 학설을 '組立'하여 만들었으며, 강의도 다양한 경제학설을 소개한 후 어떤 부분은 맑스주의 견지에서, 어떤 부분은 다른 학파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했다.<sup>129)</sup> 따라서 강의의 어떤 부분은 『經濟學大綱』(河上肇) 등 좌익서적을 참고하여 맑스주의 입장에서 설명했지만 이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맑스주의 이론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sup>130)</sup>

백남운은 상업사, 동양경제사 등은 觀念史觀과 唯物史觀을 설명한 후 "史的辯證法에 입각"하여 강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과목이 그랬던 것은 아니며, 설사 맑스이론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결함을 분석 비판한 경우라도 이는 이론적 차원이었을 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실천적 취지로써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sup>131)</sup> 노동규도 "맑스주의적 견지" "좌익이론"에 따라서 강의하며 자본주의의 모순과 결함을 지적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론적 차원의 강의로서 결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점을 '논증'하거나 일제의 조선소작농에 대한 착취문제같은 "政策的인 論題를 取해" 현실을 비판한 강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sup>132)</sup>

민족공산주의 혁명의식을 기준으로 답안을 채점하고 논문을 심사했다는 주장도

129) <피고인 이순탁 2, 3회>. 그는 참고문헌도 左右 두 입장의 저서 수십 책을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예심판사 신문과정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졸업생이 공통으로 지적한 이순탁 경제원론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지적한 사람 수, 저자: 이하 같음). 『國富論』(4, 아담스미스), 『經濟學大綱』(4, 河上肇), 『조국을 돌아보며』(4, 河上肇), 『經濟學全集』(3, 福田徳三), 『인구론』(2, 맬더스), 『경제학비판』(2, 맑스), 『맑스주의경제학의 기초이론』(2, 河上肇), 『經濟學原論』(2, 高田保馬), 『경제학연구』(2, 高田保馬), 『경제학』(2, 河津暹). 맑스, 하상조를 제외하고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130) 맑스학설로써 강의했다는 부분은 경제원론 강의안 제2편(생산론) 5장 複生産, 제3편(교환론) 5장 효용과 가격의 관계, 제4편(분배론) 1장 3절 절대지대, 4장 1절 산업이윤, 4장 2절 상업이윤 부분이었다.

131) <피고인 백남운 3, 4회>. 교과서와 참고문헌도 경찰기록과 달리(주 107) 다음 같았다고 말했다. 경제원론-『경제학입문』(로자록셈부르크), 『國民經濟講話』(福田徳三), 상업통론-『상업개론』(福田敬太郎)\*, 『상업학개론』(內池廉吉)\*, 『實買論』(小林昌太郎), 『상업개론』(石川文吾), 『시장론』(內池廉吉), 상업사-『세계경제사개론』(슈미트)\*, 『근세상업사』(野村兼太郎)\*, 『세계상업사』(도라에프스타), 『토템과 타부』(프로이드), 동양경제사-『支那의 농업경제』(마자르)\*, 『支那경제론』(田中忠男)\*. 경찰과 예심과정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졸업생이 공통 지적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상업사-『세계경제사개론』(4, 슈미트)\*, 『유품사관講話』(3, 永田廣志), 『세계소문화사』(3, 웰즈), 동양경제사-『지나의 농업경제』(8, 마자르)\*, 『조선사회경제사』(4, 백남운)\*, 『支那사회경제사』(3, 비트포겔), 『해체과정의 支那경제와 사회』(3, 비트포겔), 『支那경제론』(2, 田中忠男), 『支那문제개론』(2, 마자르),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대하여』(3, 早川二郎), 『支那고대사회사론』(2, 郭末若).

132) <피고인 노동규 2회>.

“學的良心”을 걸고 부인했다. 시험문제는 강의범위에서 출제했고, “강의의 主旨를 잘 이해했는가”가 채점기준이었다고 해명했다.<sup>133)</sup>

강연으로 대중에게 혁명의를 고취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강연회마다 경찰관이 臨席하여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의를 주었고”, 초안 2부를 만들어 1부를 경찰에 제출, 허가받은 후 강연했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는 것이었다.<sup>134)</sup> 신문 잡지에 발표한 글에 대해서도 비록 맑스주의 이론으로 현실을 분석 비판한 것도 있지만 “宣傳的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맑스주의 경제이론과 혁명이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맑스의 경제이론을 채용하는 것이 곧 혁명이론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sup>135)</sup>

예심판사 신문은 1940년 7월 13일에 끝났다.<sup>136)</sup> 그리고 이날 예심판사는 세 교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sup>137)</sup> 같은 날 예심판사는 예심종료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물어, 7월 15일로 예심을 종결하고 사건을 공판에 부치기로 했다.<sup>138)</sup> 사유는 이들이 강단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졸업 후 지도적 입장에서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라고 종용했으며, 집필과 강연으로 대중에게 자본주의를 비방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했다는 두 가지였다.<sup>139)</sup>

공판은 12월 12일 오후 1시 경성지법 공개법정에서 “公安을 害할 우려”가 있다며 非公開로 열었다.<sup>140)</sup> 세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출정했다. 심리는 이들이 공산주의 민족주의 사상을 가졌는가, 이를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는가, 연전에서의 강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집중되었다. 세 교수는 자신들은 공산주의 민족주의 사상

133) 〈피고인 이순탁 3회〉, 〈피고인 백남운 5회〉, 〈피고인 노동규 2회〉. 도서관에 좌익서적을 기증한 件에 대해서도 ‘日獨防共협정이 체결되어 대출금자를 조건’으로 기증했다고 말했다(〈피고인 이순탁 4회〉, 〈피고인 노동규 2회〉).

134) 〈피고인 백남운 5회〉, 〈피고인 노동규 3회〉.

135) 〈피고인 노동규 3회〉.

136) 이에 앞서 6월 말, 7월 초에 졸업생 이용, 조은상, 이희수, 박선옥, 김창식, 白南煥(7. 5. 37세, 1929~1932, 한성상업학교교사), 李義斗(7. 5. 31세, 1929~1933, 조선은행원), 金珍洙(7. 8. 26세, 1933~1936, 조선식산은행원)에 대한 증인신문(〈증인소환장〉, 〈증인신문조서〉, 〈1938년 예제53호 이원구의 증인불참屆〉) 1940. 6. 28)과 조선일보사(5. 8. 6. 20), 동아일보사(5. 13. 6. 26), 연전도서관(7. 8)을 통한 세 교수의 글도 모두 확보했다(〈회답서〉, 〈영치조서〉).

137) 보석금 100원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보석허가신청〉) 1940. 7. 12. 〈보석결정서〉) 1940. 7. 13. 〈출감통지서〉) 1940. 7. 13). 검사는 보석에 반대했다(〈求意見書〉) 1940. 7. 12).

138) 〈求의견서〉) 1940. 7. 13, 〈1938년 예제53호 예심종결결정서〉) 1940. 7. 15.

139) 〈1938년 예제53호 예심종결결정서〉) 1940. 7. 15. 예심판사는 집필과 강연에 대해서는 “공판에 부칠만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前示 認定事實(강의부분: 필자)과 連續 一罪로서 起訴되었음을 인정”하여 이 부분을 免訴판결하지 않았다.

140) 이하 〈공판조서〉) 1940. 12. 12. 釜屋英介(재판장), 松田, 和氣 판사, 杉本覺一 검사, 노진설, 김용무, 김병로 변호사가 출정했다. 11월 19일에 한 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재판연기를 선언하고 끝났다(〈공판조서〉) 1940. 11. 19).

을 포기했고,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도 희망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學者일 따름이라는 것이었다.<sup>141)</sup> 강의에 대해서도 맑스이론을 참고했고 어떤 과목은 그에 따라 강의했지만 “연구를 위한 것”이었을 뿐 “맑스주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사는 이들에게 치안유지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94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세 교수는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sup>142)</sup> 예심판사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2월 23일 세 교수는 법원에 <상고권포기서>를 제출했다.<sup>143)</sup>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것이다.

## 2. ‘事件’ 이후의 延專商科와 그 學風

1938년의 경제연구회事件=‘赤色教授그룹’사건은, 때마침 학외에서 불어닥친 同友會, 興業俱樂部 사건과 맞물리며 연전상과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변화는 교수진 교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38년 초 상과의 전임교수는 10명이었다(<표 10>).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 정광현 등 4명, 同友會 興業俱樂部 사건으로 홍승국,<sup>144)</sup> 최순주 등 2명, 모두 5명의 正教授 전원과 1명의 전임강사가 일거에 강단을 떠났다. 교수진 교체는 불가피하였다.

1938년도 강의를 朴孝參(상업정책)<sup>145)</sup>, 張熙昌(화폐론)<sup>146)</sup> 등 기존의 교수 강사와

141) 다만 이순탁은 원래 민족주의에 공명한다. ‘1921년頃間’부터 공산주의에 공명하여 조선독립과 공산사회 실현을 희망했지만 “당국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려 했고, 그나마 “1926년경”부터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142) <공판조서 2회> 1940. 12. 21. <1940년 刑公 제1304호 판결문> 1940. 12. 19. 旬留日數 4백일을 本刑에 算入했다.

143) <상소권포기의 신립> 1940. 12. 23. 그 후 이순탁, 백남운은 해방될 때까지 세브란스 경리과와 友人이 경영하던 신용금고에 근무하며忍苦 속에서 호구를 이어갔다. 해방 후 이순탁은 延專에 복귀했고, 백남운은 京城大學으로 옮겼으나 國大案 파동으로 곧 나왔고 후일 각각 남북, 월북하였다. 해방 후의 두 교수에 대해서는 崔虎鐵(1991), 방기중(1992), 윤기중(1993), 홍성찬(1993)에 상세하다.

144) 호적명 承昌. 1889년 충북 옥천생. 漢學을 하다 뒤늦게 옥천 彰明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만에 중퇴하고 배재학당(입학 한달 후 盟休로 퇴학)을 거쳐 1909년 1월 도미했다. 네브라스카 헤스팅스(Hastings)市立 소학교, 중학교, 오하이오주립대(1915. 9~1923. 6)를 졸업하고 귀국하여(1923. 10), 송도고보 교사(1924. 1~1925. 4), 연전 교수(1925~조교수, 1929~교수)가 되었다. 알려진 효자로서 위업과 상식을 갖추어 평판이 좋았다. 일제는 미국에서 교육받아 친미배일 사상이 농후하며 민족주의 사상을 청산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했다. 홍업구락부사건으로 연전 辭職(1938. 8. 25), 기소유예 처분(9. 3)을 받았다. 英語를 담당했다.

145) 1902년 함남 新興郡 출생. 신흥군 相洞학교, 함흥고보 졸업. 永高普校 교원(1925. 4~1926. 3)을 거쳐 1927년에 渡日했다. 明治大(1927~예과 2부, 1929. 4~1932. 3 본과 상학부) 졸업 후 상학부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세계일주 후 귀국길에서 일본에 들른 이순탁을 만나 연전에 부임(1935. 4~강사, 1937. 4~전임강사)했다. 경찰은 민족적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했으나

〈표 10〉 1937년도 연전상과 교수진과 담당과목

이름	직위	담당과목
이순탁	교수, 학과장	經濟原論, 統計學, 珠算
백남운	교수	簿記, 商業史, 會計學, 經濟史, 商業通論
홍승국	교수	영어
노동규	교수	交通論, 商業政策, 貨幣論, 農業經濟, 商業英語, 銀行論
최순주	교수	商業實踐, 外國爲替論, 廣告論
임병혁	조교수	商品學, 銀行簿記,  상업영어, 英文簿記
정인섭	조교수	영어
정광현	전임강사	民法, 商法, 特殊法令, 公法學
박효삼	전임강사	商業數學, 取引所論, 經濟事情, 信託論, 商工經營論, 稅 關及참고론
정래길	강사	財政學
육지수	강사	市場論, 商業地理, 商用文, 保險論
장희창*	강사	

자료: C. C. C.(1937). \*외유중. 정래길은 1938년 4월부터 전임강사가 됨. 이 외 隨意과목인 和英文寫字法은 스나이더(申愛道) 교수가 강의함.

陸芝修(경제사), 李常薰(상업실천), 松波港三郎(상법), 鄭寅穆(주산, 회계학) 등 외래 강사의 代講으로<sup>147)</sup> 겨우 넘긴 상과는 1938년 10월 임병혁, 鄭寅燮<sup>148)</sup>을 교수로 승진시키고, 임병혁을 과장대리로 임명했다.<sup>149)</sup> 그리고 1939년 신학기에는 박효삼, 丁來吉<sup>150)</sup>을 조교수로, 장희창을 전임강사로 발령하고, 金孝祿(神戶商大), 申泰煥(東

차츰 時局을 인식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146) 연전상과(1928) 졸업 후, 동경상대(1931, 상학사)에서 공부하고 1931년부터 상과 강사가 되었다. 연전 재학중 6·10만세 운동으로 연행되기도 했다(주 26).
- 147) 〈3학년 강의시간표〉『연전졸업앨범』 1939. 육지수는 일본 제8고(1930. 3), 동경제대 경제학부(1933. 3)를 졸업하고, 東京帝大 蠶絲經濟研究室 조수(1933. 4~1936. 3)를 거쳐 1936년부터 연전에서 강의했다. 정인섭은 명치대학(상학부) 졸업 후 금융조합에서 근무하다 이 때 연전강사가 되었다.
- 148) 1905년 경남 울산생. 인양普校, 대구고보, 조도전제일고등학교, 조도전大 영문과(1926~1929)를 마치고 연전상과에 부임(1929~강사, 1934~전임강사, 1936~조교수, 1938. 10~교수)했다. 영어를 담당했다. 경찰은 취조받은 이래 前非를 크게 뇌우쳐 개전의 정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일제가 延專을 없애고 이를 京城工業經營專門學校로 바꾼 후에도 그대로 남아 교무과장을 지내며 해방될 때까지 근무했다. 일제 말의 행적은 김학민·정운현 엮음, 1933. 『親日派罪狀記』 학민사, p. 515 참조.
- 149) 1938년 4월 이순탁이 검거된 후 상과과장은 최순주가 대리했으나, 그가 동우회 사건으로 검속되어 홍승국이 代理했고, 그마저 홍업구락부 사건으로 검속당해 학교를 그만두자 임병혁을 임명한 것이다(연세대학교, 1969, p. 1270, 『연전졸업앨범』 1939).
- 150) 1895년 전남 곡성출생. 한문수학. 곡성통명학교 중퇴. 1912년 9월 도일하여 동경 명치학원 중학부, 경운대학(1917~예과, 1920~1924 법학사)을 졸업했다. 유학중(1919년 11월 현재) 김준연(부회장), 백남훈(간사), 박형병(親接部長) 등과 함께 조선기독청년회에서 弘濟部長으로 활동했다(주 10의 자료 p. 87). 연전상과 부임 후(1933~강사, 1938. 4~전임강사) 商科의 재정

京商大)을 각각 전임강사, 강사로 신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순탁 과목은 신태환(경제원론, 통계학), 장희창(주산)이, 백남운 과목은 장희창(부기, 회계학), 김효록(상업사, 상업통론), 육지수(동양경제사)가, 노동규 과목은 신태환(교통론, 화폐론), 박효삼(상업정책), 김효록(은행론)이, 최순주 과목은 이상훈(상업실천), 박효삼(외국위체론)이, 정광현 과목은 高秉國(민법)<sup>151)</sup>, 정래길(공법학)이 맡았다(〈표 11〉). 교수진 교체와 개편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1940년에는 장희창을 조교수로 승진시켜 과장에 임명했고(〈표 12〉), 1941년에는 孫膺祿(大阪商大)을 새로 영입하는 한편 전임강사로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김효록을 조교수로 승진시켜 과장에 임명했다.<sup>152)</sup>

〈표 11〉 1939년도 연전상과 교수진과 담당과목

이름	직 위	담 당 과 목
임병혁	교수, 과장대리	상업영어, 영문부기
박효삼	조 교 수	상업정책, 상공경영론, 신탁론, 상업수학, 외국위체론, 取引所論
정래길	조 교 수	경제, 법학, 재정학, 공법학
장희창	전 임 강 사	주산, 부기, 회계학
김효록	전 임 강 사	은행론, 상업통론, 시장론, 경제사정, 상업사
육지수	강 사	상업지리, 商用文, 경제사, 보험론, 稅關及창고론
李常薰	강 사	상업실천
申泰煥	강 사	경제원론, 화폐론, 통계학, 상품학, 교통론
高秉國	조 교 수	상법

자료: 연희전문학교(1939), 『연전졸업앨범』 1940. 이상훈(동경상대)은 警察學과 과장, 육지수는 경성제대 강사였다.

〈표 12〉 1940년도 연전상과 교수진과 담당과목

이름	직 위	담 당 과 목
張熙昌	조교수, 과장	주산, 상업부기, 회계학
임병혁	교 수	상업영어
박효삼	조 교 수	商業政策, 상업수학, 공업정책, 신탁론, 取引所論
정래길	조 교 수	경제학, 법학, 재정학
金孝祿	전 임 강 사	은행론, 상업통론, 시장론, 보험론, 협동조합론, 원가계산
申泰煥	전 임 강 사	경제원론, 화폐론, 통계학, 회계감사, 상품학, 경기변동론
陸芝修	강 사	상업지리, 상업사, 일본산업론, 교통론, 동아경제사정
李常薰	강 사	상업실천
金成炫	강 사	은행부기
高秉國	조 교 수	상법
鄭寅穆*	강 사	상학
松波港三郎*	강 사	법학

자료: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일람』 1940. 임병혁은 4월부터 9월까지 학사시찰차 동경제대, \* 휴직중. 松波는 京城法專 교수.

1938년의 경제연구회, 동우회, 용업구락부 사건으로 교장을 제외한 교무위원 전원이 추방 교체되는 속에서<sup>153)</sup> 이루어진 이러한 교수진 개편은 상과교수들의 시국 인식과 대응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임병혁, 박효삼, 정래길 교수는 이미 경제연구회 사건으로 고초를 치른 터라 민족주의 맑스주의 사상과 절연한 채 스스로 근신하며 일제의 皇民化 정책에<sup>154)</sup> 솔선수범해야 할 처지였다. 1939년 이후 영입된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상과의 항일적 맑스주의적 교육방침과 학풍, 연전의 민족주의적 교육이념과 학풍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학교 전체가 皇民化 정책, 국민정신총동원체제, 이른바 '新體制'에 순응해 갔던 것이다. 1938년 말부터 교수들의 복장이 國民服으로 바뀌고,<sup>155)</sup> 1940년 이후에는 교수들의 창씨개명<sup>156)</sup>과 단발(삭발)이<sup>157)</sup> 이어진 것이 그 단적인 예였다.

경제연구회 사건 이후 상과에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1940년 2월에 교과과정을 개편한 일이었다. 영어가 총 26시간에서 21시간으로 줄고 대신 日本學이 1, 2, 3학년 각 1시간씩 필수로, 國史(日本史)가 1학년 필수 2시간으로 신설되었다.<sup>158)</sup> 이때

학, 공법학, 文科의 경제원론, 사회학, 법제를 담당했다. 경찰은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했던 인물이나 지금은 개전의 정이 있다고 평가했다.

- 151) 동경제대 법학사로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조교수(민법, 상법)로 근무했다(연세대학교, 1969, p. 1286).
- 152) 『연전졸업앨범』 1942.
- 153) 용업구락부사건으로 유억겸이 검거(1938. 4)되자 부교장은 배커, 학감은 이춘호(수물과장)가 맡았다. 그 후 이춘호도 같은 사건으로 검거되자(1938. 5) 학감은 이원철을 거쳐 그해 9월 이묘목이 승계했고(도서관장 겸임), 수물과장은 최규남이 맡았다. 문과과장 최원배와 상과과장 대리(주 149) 홍승국도 이 두 사건으로 추방당해 문과와 상과과장은 하정덕, 임병혁이 각각 맡았다(연세대학교, 1969, pp. 1269~1270).
- 154) 경제연구회 사건이 발발한 1938년 이래 일제는 皇民化 정책의 '세 기둥'이라는 조선육군특별지원령(1938. 2), 제3차 조선교육령(1938. 4), 조선창씨개명령(1939. 11)을 공포하고(宮田節子, 1992. <창씨개명의 시대> 『창씨개명』 학민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1938. 7), 조선학생정신총연맹(1939. 7), 국민총력연맹(1940. 10),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 2) 등을 발족 공포하는 등 사상탄압과 황민화 정책에 몰두했다.
- 155) 1938년 10월에 학감, 상과과장대리, 수물과장대리가 된 이묘목, 임병혁, 최규남 등이 그 학년도 말에 촬영한 『연전졸업앨범』(1939)에 국민복 차림으로 등장한 이래 1940년 이후에는 상과교수 전원이 국민복 차림으로 등장한다(『연전졸업앨범』 1941, 1942). 일본의 제국대학과 달리 한국에서는 경성제대 교수들조차 이런 차림이었다. 그 풍경에 대해서는 崔虎鎮, 1991, p. 430 참조.
- 156) 1940년에 김(金山)효륙, 장(張原)희창, 육지수(陸 修一), 박(英井)효삼, 정(日戶)래길, 신(平山)태환, 이(松岡)상훈, 정(東原)인섭이, 1941년에는 손용록(松野吉秀)이 창씨개명했다(『연전졸업앨범』 1941, 1942). 일제말 연전 교수들의 창씨명은 『연전졸업앨범』 1942, 부록 참조.
- 157) 단발(삭발)은 1940년부터 등장한다. 1940년에 상과의 교수 학생 일동이 본관 앞에서 찍은 사진(『연전졸업앨범』 1941) 참조. 전원이 삭발, 국민복 차림이었다. 김효륙은 1942년 7월에 <大東亞共榮團의 貿易理念> 『春秋』 18호(3권 7호)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 158) 일본학은 松本卓夫(교수겸 종교부장, D. D)와 朴相鉉(전임강사, 문학사, 창씨명 木戶耕三)이, 일본사는 喜田新六(강사, 경성제대 교수, 문학사)과 李仁榮(강사, 문학사, 창씨: 春山)이 강의했다. 1940년도 상과의 일본학은 박상현이 강의했다(『연전졸업앨범』 1941). 박상현은 경성

올로기교육의 강화였다. 經濟學, 商學과목도 조정하였다. 日本產業論을 신설하고, 經濟事情을 東亞經濟事情으로 변경하여 시국에 대응하는 한편 과목의 신설, 명칭 변경, 통폐합, 필수와 선택 조정, 개설 학년 및 시간수도 조정했다.<sup>159)</sup>

경제연구회 사건이 상과의 경제학풍에 가져온 세 번째 변화는 이미 1926년 5월부터 '경제이론과 實際문제의 討究, 實踐,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2년이나 활동해 온 經濟研究會를 해체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가 목적인 商友會(Commercial Club)라는 새 단체를 조직한 일이었다. 상우회는 이처럼 설립목적이 경제연구회와 달랐기 때문에 주요사업도 경제연구회(① 研究 發表 資料調查 報告, ② 講演會 討論會 개최)와 달리 ① 親睦會 개최, ② 學術장려, ③ 出版사업으로 정했고, 회원자격도 '文科 數物科生 중 지원자'를 뺀 '商科재학생'으로 한정했다. 부서도 경제연구회 사건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연구부(調查報告 강연회 토론회 개최)를 학술부(講演會 및 학술연구)로 개칭하고 업무도 축소하는 등 경제연구회와의 단절을 꾀했다.<sup>160)</sup>

그러나 이것들보다 商友會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商友會의 사업이었다. 1939년 10월 상우회는 제1회 全鮮남녀중등학교 포스터작품전을 개최했다. '産業報國 商業美術 助長'을 목표로 '時局에 適應하는 뜻이 加味'된 중등학생들의 포스터를 출품받아 시상하고, 입선작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화신백화점 6층에서 전시한 것이다.<sup>161)</sup> 1940년 10월에는 경성일보사의 후원아래 제2회 全鮮중등학교 포스터작품전을 개최했다. '新體制下의 商業美術 조장'을 목적으로 자유과제와 추천과제 두 분야로 나누어 10월 1일부터 모집했는데 추천과제는 "防共 防諜 등 時局"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작품이어야 했다.<sup>162)</sup> 반일 반자본주의의 이념아래 민족해방과 독립국가건설을 생각했던 經濟研究會의 학풍은, 총독부 기관지인 京城日報社의 후원을 받아 防共 防諜을 주제로 전람회를 연 商友會의 機能主義的 학풍으로 변질해 갔던 것이다.<sup>163)</sup>

공업경영전문학교 시절까지 남아 生徒과장을 지냈으며 '國語(日語)常用之家'임을 자부했던 인물인데, 木戶耕三, 1943. <특별지원병제도와 학도> 『朝光』 97호(9권 11호)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159) 經營經濟學, 經濟學史, 景氣變動論, 工業政策, 英語經濟書講讀, 協同組合論, 會計監查, 原價計算 등도 신설되었다. 농업경제는 농업정책으로, 銀行論은 銀行及金融, 稅關及倉庫論은 倉庫論으로 변경되었고, 貨幣論과 外國爲替論을 묶어 貨幣及外國爲替論으로 통합했다. 상세한 사정은 C. C. C. (1937), 연회전문학교, 1939, 1940 참조. 이 때부터 3학기제가 2학기제로 바뀌었다.

160) 商友會 회칙은 연회전문학교, 1940, pp. 106~107 참조.

161) 『연전졸업앨범』 1940.

162) 『연전졸업앨범』 1941. 모두 150명이 응모했는데 자유과제 12명, 추천과제 9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10원의 公債와 상장을 주고 이를 전람했다.

163) 1940년에 상과의 교수 학생들은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緘鍊'이라 씌여진 초대형 휘장이 드리워진 연전 본관 앞에서 교수 학생 전원이 삭발에 국민복 차림으로 촬영했다(『연전졸업앨범』 1941).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상에서 검토한 대로 1938년 경제연구회사건= '赤色교수그룹사건' 이후 연전상과의 反日·反資本主義的 경제학풍은 일제의 사상탄압이 거세어지는 속에서 완전히 변질되었다. '新體制'에 순응하며 內鮮一體와 防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일제의 사상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42년 8월에 학교재산을 적산으로 몰수하고, 재단을 해체했으며 교장도 日人으로 바꾸었다. 1944년에는 연전을 京城工業經營專門學校라는 새로운 학교로 만들면서 商科를 없앴다. 연전상과는 學風은 고사하고 존재조차 없어졌던 것이다.

#### IV. 結 語

1920년대 중반기 한국의 사상계, 학술계는 그 學問觀과 學風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일제의 한국강점에 사상적 학문적 기반을 제공한 官學的 학문관과 이에 대립 저항한 反官學·反帝·反日的 학문관으로의 분화였다. 둘째는 반관학적 학풍내에서의 분화로서 여기에는 크게 두 계열의 학문관이 공존 각축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학문관과 사회주의 맑스주의의 학문관이 그것이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학문관의 분화와 각축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분화 대립의 강도를 더해갔다. 일제의 관학적 학문관과 민족개량주의 세력의 친일적 타협적 학문경향이 발호했고, 그 對極에서 반관학·반일·반제·反資本主義的 학문경향이 학문적 戰線을 형성하며 강화해 갔다. 대공황 이후 일제 수탈정책의 고도화, 계급모순의 심화, 노농계급의 정치적 진출 확대와 적색화, 민족주의 세력의 개량화 등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며 1930년대의 학술계는 民族問題, 階級問題를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이다.

1930년대의 이러한 사상적 地圖아래서 延專商科의 학풍은 이러한 문제에 학문적으로 민감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던 경제학 교수들의 학문경향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으며 형성되어 갔다. 당시 연전상과의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 등 상과의 경제학 교수들은 학문의 수준이나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이 시기 한국 학계의 반관학·반일·반제 반자본주의적 학문관을 대표하는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사상탄압이 극단화하는 속에서도 민족주의 맑스주의 입장에서 조선의 현실과 역사를 연구한 저술을 발표하여 당시의 학계를 압도하였다. 官學的 학문관과 민족개량주의의 타협적 학문관에 맞선 학문적 대응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朝鮮經濟學會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한국학계의 반관학·반일 학자들을 조직하는 일도 주도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코 계급주의와 세계주의 노선에 집착하지 않았다. 민족협동을 생각하며 좌우가 합작 절충하는 가운데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최우선의 과

제로 삼았다. 이러한 학풍은 이순탁, 백남운, 노동규 등 상과 교수들의 학문적 입장이자 경제연구회라는 학생연구단체의 학문적 분위키이기도 하였다.

1938년 2월 연전상과에서 일어났던 經濟研究會 사건, 일명 '赤色教授그룹' 사건은, 연전상과의 이러한 학풍을, 일제가 廟學 차원에서 탄압했던 대표적인 사상탄압 사건이었다. 1936년 2·26사건 이래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대학탄압 학계탄압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극렬한 사상탄압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 채 休止상태로 들어간지 1년이나 지난 경제연구회의 과거 학술활동을 빌미로, 일제는 한국 最古最大의 사립고등교육기관인 延專을 초토화시켰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연전상과의 민족주의적, 탐스주의적, 反관학적 학풍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한동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교수진이 대폭 교체되고, 교과목도 바뀌고, 경제연구회가 해체되는 대신 商友會라는 官製단체가 들어서는 속에서 연전상과는 '新體制' 이데올로기에 순응해 갔다. 일제말 연전상과 경제학풍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연전상과 경제학풍의 변화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연전상과 朝鮮學術界의 '參謀本營' 격인 朝鮮經濟學會의 실질적인 주도세력이었던 점에서, 연전상과 경제학풍의 변질은 사실상 反日·反帝·反官學的인 朝鮮經濟學界의 궤멸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조선경제학계에서 이러한 학풍이 부활한 것은 민족독립 후의 일이었다.

### ◆ 參 考 文 獻 ◆

#### 〈자 료〉

1. 『延禧專門學校學內赤化事件數類綴』(1938~1940).
2.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의일보』, 『매일신보』, 『延禧타임스』, 『연세춘추』.
3. 『經濟研究』, 『學之光』, 『東光』.
4.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사』, 1969.
5. ———, 『연세대학교백년사』, 전4권, 1985.
6.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일람』, 1939, 1940.
7. ———, 『졸업앨범』, 1922, 1926, 1927, 1936, 1939, 1940, 1941, 1942.
8. 警保局保安課, 「朝鮮人概況 3, 1920. 6. 30」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I』, 三一書房.
9. 이순탁, 『最近 世界一周記』,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10. ———, 「特殊事情에 鑑한 經濟學의 朝鮮的 研究論」, 『조선일보』, 1935. 7. 8.
11. 하일식 편, 『백남운전집』 전4권, 이성과 현실사, 1994.

12. 조병욱, 「社會的 關爭의 經濟的 基礎 및 救濟策」, 『조선일보』, 1926. 1. 1.
13. ———, 『나의 回顧錄』, 어문각, 1963.
14. 노동규, 「農村振興策如何(13)」, 『동아일보』, 1927. 1. 1~1. 22.
15. ———, 「朝鮮農家經濟實相調查解剖」, 『동방평론』 1권 3호, 1932.
16. 최순주, 「販賣員의 訓練을 어떻게 할까?」 『新東亞』 5권 6호, 1935.
17. 김효록, 「大東亞共榮團의 貿易理念」, 『春秋』 3권 7호, 1942.
18. 鮮于全, 『朝鮮의 土地兼併과 其 對策』, 조선도서주식회사, 1923.
19. 한양학인, 「左傾教授 右傾教授-延禧專門教授層評(續)」, 『삼천리』 12, 1931.
20. 이수일 편, 『印貞植全集』 전5권, 한울출판사, 1933.
21. 임영태,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 사계절, 1985.
22. 崔虎鎮, 『나의 학문 나의 인생』, 매일경제신문사, 1991.
23. 김규삼, 「3교수 사건의 주역 이순탁」, 『연세춘추』, 1977. 2. 28.
24. ———, 「경영학 도입의 선구」, 『연세춘추』, 1965. 6. 7.

〈연구논저〉

25. 장동진, 『일본근대사』, 한길사, 1985.
26.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 6, 1991.
27. 김경일, 『이재유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28. 김광진, 「백남운 교수의 新著 '朝鮮社會經濟史」, 『동아일보』, 1993. 9. 21.
29. 金基承, 『襄成龍의 政治經濟思想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90.
30. 金相泰, 「1920~1930년대 同友會 興業俱樂部 연구」, 『한국사론』 28, 1992.
31. 김용섭, 「한국 일본에 있어서의 韓國史 서술」, 『역사학보』 31, 1996.
32. 박한용, 「경성제대 反帝同盟事件연구」,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1991.
33.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34. 윤기중, 「경제 경영학의 학문적 전통」, 『계간연세 진리 자유』, 겨울호, 1989.
35. ———, 「이순탁」, 『계간연세 진리 자유』, 봄호, 1993.
36.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37. 李基俊, 『教育 韓國經濟學發達史』, 일조각, 1983.
38. ———, 『韓末西歐經濟學導入史研究』, 일조각, 1984.
39. 이병희, 「미완의 조선봉건사회론」, 『역사와 현실』 12, 1994.
40. 이수일, 『日帝強占 解放期 印貞植의 經濟思想研究』, 연세대 석사논문, 1992.
41. 이애숙, 「이재유 그룹의 黨재건 운동(1933~1936)」, 『일제하 사회주의운동』, 한

- 길사, 1991.
42. 이준식, 「백남운의 사회사 인식」, 『한국사회연구의 전통』, 한국사회사연구회는 문집 40, 문학과지성사, 1993.
43. 장세윤, 「일제의 京城帝國大學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1992.
44. 趙璣濬, 『韓國資本主義 發達史』, 대왕사, 1991.
45. 朱赫, 『朝鮮事情研究會』의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1.
46. 홍성찬, 「일제하 李順鐸의 농업론과 해방직후 立法議院의 토지개혁법안」,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崔虎鎮博士講壇50周年紀念論文集刊行會, 박영사, 1993.
47. ———, 「한국근현대 中間派의 정치경제사상 - 李順鐸의 社會民主主義論을 중심으로」, 미발표 논문, 1994.
48. 廣川禎秀, 「파시즘期の 저항운동과 민중의식」, 『講座 日本歷史』 10, 동경대학출판회, 1985.
49. 宮田節子, 「창씨개명의 시대」, 『創氏改名』, 학민사, 1992.
50. 大內兵衛, 『經濟學五十年』, 상·하, 동경대학출판회, 1959.
51. 리차드 미첼, 『日帝의 思想統制』, 김윤식 역, 일지사, 1982.

## 〈부 록〉

### 延禧專門學校 商科 經濟研究會 회칙

- 1조 본회는 경제연구회라 칭함
- 2조 본회는 연희전문학교내에 置함
- 3조 본회는 經濟의 理論과 實際問題의 討究 及 實踐과 會員間에 親睦을 도모함으로 목적함
- 4조 본회의 理想을 관철키 위하여 좌기 사업을 행함
  1. 經濟問題의 研究, 發表, 經濟資料의 調查報告
  2. 經濟에 대한 講演會 討論會의 개최
- 5조 회원은 商科在籍生 全員과 文科 數物科生 중 지원자에 한함
- 6조 회원은 선거권 급 피선거권과 提議 權 可否 表決권이 有함
- 7조 회원은 會費부담 權 集合出席의 의무가 有함
- 8조 본회는 집행위원 약간인으로 조직하며 下記사업을 분담 처리함
  1. 代表者 1인 - 본회를 대표하여 會務를 통할 지휘함

2. 庶務部 약간인 - 文簿 財政관리를 행함
3. 研究部 약간인 - 調查報告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함
4. 出版部 약간인 - 출판에 관한 사무를 행함
5. 社交部 약간인 - 社交에 관한 사무를 행함

9조 집행위원은 정기총회에서 此를 결정함

10조 각부의 사무처리는 집행위원회의 附議를 요함

11조 집행위원의 任期는 만 1개년으로 함

12조 집회는 집행위원대표가 이를 招集함

1. 정기총회는 年 2회로 함 - 전원 3분지 1 이상 출석을 요함  
 제1회(4월중) - 예산안 통과 기타  
 제2회(익년 1월중) - 경과보고, 위원개선, 新舊사항 토의 기타
2. 임시총회는 필요를 認할시 전원 4분지 1 이상의 출석을 요함
3. 집행위원회는 수시 행함

13조 본회 회비는 每期 50錢으로 함. 단, 필요에 의하여 회비 이상에 수시 징수함을 득하며 신입회원에 한하여는 入會費로 1원을 제1기 초에 징수함

14조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함

### ◎ 부 칙

1조 본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지에 가결로 개토침삭함을 득함

2조 본회 회칙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함

3조 본회 회칙은 통과일부터 시행함

4조 총회결산은 필히 현금결산을 함. 但, 此를 이행치 못한 部가 有할 때에는 書面결산의 대회처단에 부함